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6 PM 페이지 1 진성CTP 2400DPI 175LPI

성북동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3

004 들어가는 말

010 밝고 아름다운 햇빛이 온 종일 강물처럼 퍼 붓고 있는 곳
성북동의 역사

026 낙목한천의 암석미
별장과 나들이

040 어서 겨울 가고 봄이 와 잔디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라
성북동의 변화

일러두기

인용문과 사진의 출처, 주석은 부록에 실었습니다.
따옴표로 묶은 글은 성북동 주민들을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헌데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050
마을과 생활

비개인 맑은 아침인 것을 저희들만 아노라 062
시설

별을 보던 시대는 행복했다 072
마을사람이 기억하는 성북동

마을 집 아늑하여 그림 같은데 088
성북동 문화유산

부록 112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4 진성CTP 2400DPI 175LPI

들어가는 말

숫은 성벽은 아침이 첫 화살을 쏘는 과녁으로 성북동의 광명은 이 산상山上의 옛 성벽으로부터 퍼져 내려오는 것이다. 한참 쳐다보노라면 성벽에 드리운 소나무 그림자도, 성城돌 하나하나 사이도 빤히 드러난다.

이태준, 「성城」, 1944

성 바깥 북쪽 동네, 성북동.

산이 깊고 물이 맑아 성城안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이곳에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물길 따라 굽이굽이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잠업蠶業이 잘되길 기원하던 선잠단과 조선시대 군대의 주둔지, 양반들과 부호의 별장이 있고 서민들이 나들이를 오는 마을이었습니다.
도성을 둘러싼 성곽의 위엄은 성 밖 울창한 소나무 숲과 만나면 속세를 떠나 자연으로 들어오는 경계일 뿐이었습니다. 골짜기 사이로 토끼, 꿩, 늑대까지 산짐승이 뛰어다니고, 북한산 자락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은 큰 바위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봄이면 복숭아꽃, 앵두꽃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하였고, 여름이면 물놀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5 진성CTP 2400DPI 175LPI

성북동은 1765년 왕을 호위하던 군영인 어영청御營廳의 북쪽 병영兵營, 즉 북둔北屯이 설치된 것에서 유래[1]한 이름입니다. 북둔에서는 병사들이 군사훈련을 하거나 문신들이 활쏘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성곽 안쪽부터 숙정문 밖까지 이어진 국유림은 궁궐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산이 되는 산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은 국유림에 몰래 들어가 벌목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때 선잠단 근처의 평평하고 넓은 골짜기와 밭에 백성들을 살게 하여 도성을 수호하고,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성북동에 점차 사람이 모이고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산수山水가 좋은 곳에는 정자와 별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선후기 양반들의 별장에는 외국사신까지 나들이를 나와 시를 읊고 풍류를 즐겼습니다. 숙정문 근처와 구준봉狗遵峰에서 나무를 한 아이들은 심우장에서 나뭇짐을 내려놓고 쉬기도 하고, 개울가에서 멱을 감았습니다. 집 앞으로 개울이 흐르고, 산자락에 안긴 마을에서 예술가들은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히고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6 진성CTP 2400DPI 175LPI



〈도성삼군문분계지도 都城三軍門分界地圖(1751)〉중
숙정문(肅淸門), 구준봉(狗蹲峰), 혜화문(惠化門), 사아리(沙阿里) 부분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7 진성CTP 2400DPI 175LPI

평온했던 성북동은 한국전쟁으로 역사의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인민군의 침입과 좌우사상 대립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식인들을 납치해가는 중간기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맑은 물은 핏빛으로 물들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슬픈 눈물이 되었습니다.

물은 길이 되고, 아름드리나무는 집이 되어, 마을이 커지고 이웃이 늘어났습니다. 풍류객들이 바위에 새긴 글씨와 예술인들이 살던 아름다운 집은 사라져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시 성북동의 옛이야기를 찾고, 역사와 문화를 더듬어가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지석만 남은 집터와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성북동을 모두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는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여 알리는 책입니다. 성북동에는 우리나라 근대 문화계에 큰 영향을 미친 여러 문화예술인이 모여 살았습니다. 1권과 2권에서는 이들의 삶과 작품세계, 서로 이웃해 살며 교류한 이야기를 통해 성북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문헌과 신문자료에 기록된 성북동과 주민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성북동에 마을이 생긴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 조선시대 사람들이 성 문을 나와 나들이를 나선 발길을 따라, 성 밖 마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곳을 아끼고 즐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추억을 통해 생생히 살아있는 성북동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책에 싣지 못한 성북동 사람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소개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도와주신 성북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성북동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9 진성CTP 2400DPI 175LPI

밝고 아름다운 햇빛이 온 종일 강물처럼 퍼 붓고 있는 곳

성북동의 역사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10 진성CTP 2400DPI 175LPI

밝고 아름다운 햇빛이 온 종일 강물처럼 퍼 붓고 있는 곳•

성북동의 역사

성북동은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남아있는 문화유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선잠단先蠶壇이다. 선잠단의 위치는 1425년에 발간된 『경도한성부京都漢城府』에서 처음 나타난다. "선잠단은 동소문 밖 사한이沙閑伊에 있다."[2]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한이는 성북동을 말한다. 예로부터 나라에서는 누에치고 길쌈하기를 권장하고, 누에신[蠶神]에게 제사지내는 단을 만들어 왕비가 해마다 친히 제사지냈다. 중국 상고시대 황후인 서릉씨西陵氏를 누에신으로 모시고, 주변에 뽕나무를 심고, 궁중에서 키우는 누에를 먹였다.

"도성 북쪽 성북동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백성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영조41년(1765)에 김한구와 홍봉한은 어영청 북둔을 설치하여 도성 방위를 하고, 백성의 살 곳을 마련하고자 조정에 그 뜻을 올렸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11 진성CTP 2400DPI 175L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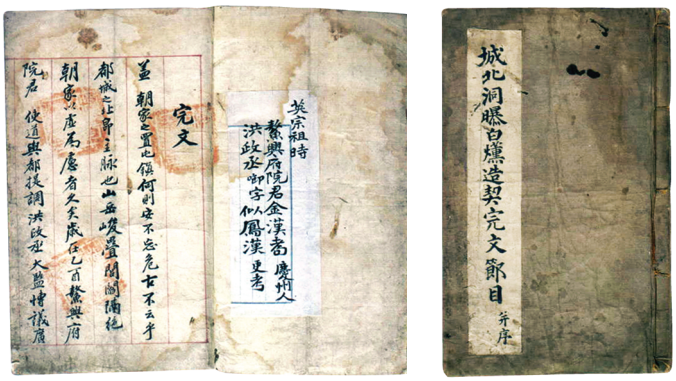
•김동리, 「해방」

영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북성北城주맥主脈의 동북쪽에 빈 골짜기가 하나 있어 지면이 매우 평평하고 넓은데, 나무꾼들이 함부로 들어가 벌채하여 민둥산이 되어 나무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수십 호의 인가人家를 두어 살게 한다면, 가히 도성都城을 수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박전薄田약간 경頃이 선잠단先蠶壇근처에 있는데, 군사軍士의 늠료稟料•를 먹는 자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되 그 밭을 경작하게 하고 그 세금을 감하여 주어 그들에게 생활을 정착하게 한다면, 가히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는 실효實效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105권, 41년(1765)

•늠료稟料 : 벼슬아치들에게 주던 봉급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12 진성CTP 2400DPI 175LPI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節目

1805년 6월 성북동 백성들에게 마전하는 일과 메주 쑤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는 문서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13 진성CTP 2400DPI 175L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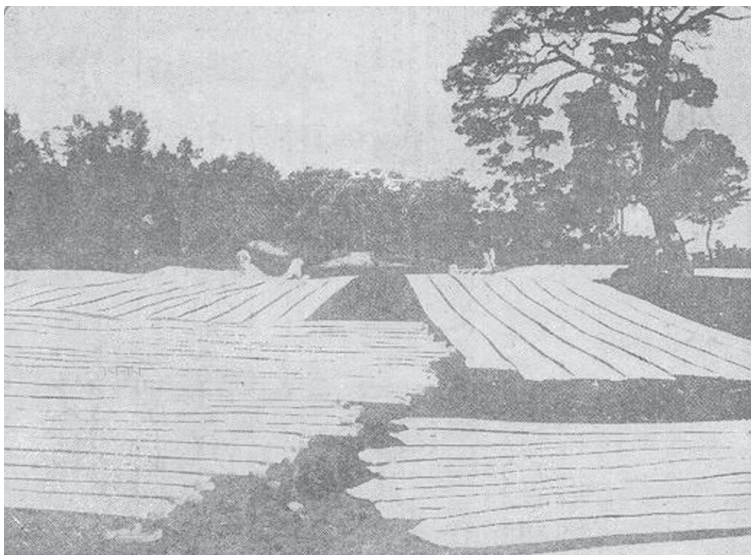
백성을 이주시켰지만, 산이 깊고 농지가 적어 백성들이 살기가 막막하였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여야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인가. 온통 나무와 마르지 않고 흘러넘치는 물 밖에 없구나.'
영조43년(1767) 가을, 조정에서는 백성들에게 직물을 빨거나 삶아서 볕에서 바래는 마전 기술을 익히게 하고, 도성의 면木, 베布, 모시苧를 포백曝白하는 일감을 받도록 했다. 또, 메주를 쑤는 훈조막燻造幕을 두어 마전일을 하기 어려운 겨울에도 백성들이 살 궁리를 하게 하였다. 가마솥을 걸고 콩을 삶아 메주를 쑤던 곳은 '북적 북적' 메주 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여 북적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삼각산(북악)이 두활개를 쩍 벌린듯한 동쪽 활개에 해당한 소지맥이 먼 안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흠절이라면 흠절이지마는 그 지맥 구릉과 이편 성벽이 서있는 구릉 사이에 삼태기 밑바탕처럼 옴쑥히 들어박힌 평지가 성북 마전터의 조그마한 초평이다. 그 초평의 가운데를 맑은 물이 구비쳐 흘러내려가서 삼선평 일대의 습지를 만들어 준다. … 마전터 초평에는 마전하여 길게 펼쳐 말리고 있는 포목이 수없이 흰줄을 그리어 있으며 그 은저리로 왔다갔다 하는 남녀 빨랫군이 조그만 꼭두각시 인형처럼 보이었다.

윤백남, 「야화」, 1952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수립까지 백년 남짓한 세월동안 세상은 바뀌었지만 성북동의 자연과 그에 기대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이웃 동네에서는 성북동을 '마전으로 먹고 사는 동리' 라고 불렀다. 혜화동, 명륜동, 옆 마을 사람도 머리에 한가득 빨래를 이고 성북동으로 넘어왔다. 하얀 광목이 흐르는 물을 따라 넘실대고, 풀밭 위에서 햇빛을 받으며 펄럭였다. 성북동은 온통 하얗고 파랗고 푸르렀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14 진성CTP 2400DPI 175LPI



흰 옷 입은 대지, 성북동 초원에서(동아일보,1935.05.31)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15 진성CTP 2400DPI 175LPI

더 알아보기

마전터

1902년에는 성북동에 표백회사가 들어섰다. 한산 등지에서 생산한 모시가 서울로 올라오면 성북동에서 표백을 했다.

오궁동五宮洞에 사는 서상인徐相寅씨 등이 농부農部에 청원하되 본인 등이 표백회사를 성북동에 설치하고 세납은 봄과 가을에 1천냥씩 수납하겠으니 인허해 달라고 하였다.

황성신문, 1902.05.08

현재 성북초등학교 자리에 마전한 광목을 말리곤 했고, 운수교 자리에는 직조공장이 있었다. 해방 이후 직조 과정이 점차 기계화 되면서 사람의 힘으로 마전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1970년대 성북천 복개공사로 빨래터도 사라졌다. 하얀 광목과 굵은 땀방울이 만들던 성북동의 풍경은 사라지고 이제는 성곽 옆 '마전터' 라는 음식점 이름으로만 남아 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16 진성CTP 2400DPI 175LPI

마을이 생기며 골짜기와 길에도 이름이 붙었다. 북정골 입구 개천에는 돌다리와 나무다리가 놓여있어 마을사람들이 '쌍다리'라고 불렀다. 1970년대 철근으로 만든 다리로 바뀌었다가 성북천이 복개되며 지금은 쌍다리라는 지명만 남아 있다.
북청동北淸洞과 운수동雲水洞 사이 마전터에는 마전다리가 있었는데, 두 동네의 이름에서 청淸자와 운雲자를 따서 청운교淸雲橋라고도 불렸다.

선잠단 근처 마을은 논골이라 불렀다.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논을 일구고 살았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논골은 운수동이라고도 불렸는데, 마을 이름이 새겨진 바위가 있었다. 운수동 개천에는 운수교가 놓여있었다.[3]
노구멧골은 운수동 위쪽에 있던 마을이다. 노구메는 노구솥에서 지은 밥이라는 뜻이다. 옛날 이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노구메를 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린 정성 때문에 남편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4]

성락원 근처는 꿩이 많이 살아 '꿩의 바다'라는 이름이 붙었다. 도심에서 보는 동물이라고는 비둘기와 길고양이뿐인 요즘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마을사람들의 기억에는 산짐승들과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다.

"늑대였지, 옛날에는. 초등학교 2~3학년 때예요(1940년대 초). (북단장) 저쪽 한옥에 살 때인데. 내가 개를 좋아해서 큰 개들을 길렀거든. 겨울인데 갑자기 개가 방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야. 막 떨면서. 그 큰 개가 벌벌 떨면서. 야 이상하다 하고 창밖을 보니까 뭐 시퍼런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늑대가. 저너머서 건너 온 거지."

전성우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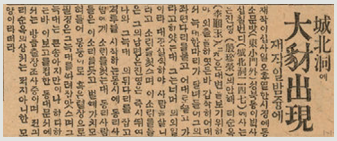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17 진성CTP 2400DPI 175L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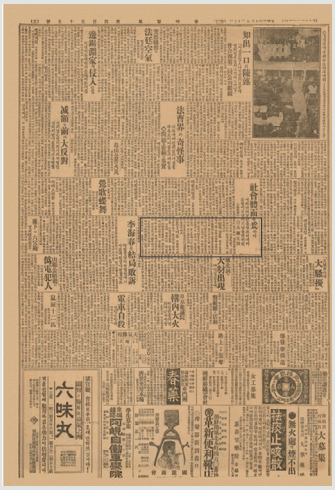
신문기사 속 성북동

늑대 출현

지난 24일 오후 11시 동소문 밖 성북동 147번지에 사는 은진영의 아내 이순옥은 대변을 보기 위하여 외출을 하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늑대 한 마리가 달려들어 그의 왼쪽 다리를 물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였는데, 그는 너무 의외라 크게 놀라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쳤으며 이 소리를 들은 그의 남편 은진영은 즉시 뛰어나와 그 늑대의 뒷다리를 잡고 격투를 시작하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벌떼같이 모여들어 몽둥이로 혹은 철장으로 끝내 늑대를 때려잡았으며 그 늑대는 큰송아지만큼 크다는 바 이 보고를 접한 동대문서에서는 방금 출장 조사 중이며 이순옥의 상처는 적지 않은 모양이라더라.

동아일보, 1921.11.26


城北洞에
大豹出現


六味丸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18 진성CTP 2400DPI 175LPI

삼선평三仙坪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 신선이 옥녀봉에서 옥녀와 어울려 놀았다는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기록에 보면 삼선평의 옛 이름은 '사아평沙阿坪'으로 혜화문 왼쪽과 숙정문 오른쪽 터라 하였다.[5] 삼선교는 삼선평에 놓인 다리를 일컫는데, 지금은 성북동 지하철 한성대입구역의 부역명副驛名으로 쓰인다.

삼청동과 성북동에 걸쳐 있는 응봉應峰(또는 매봉)의 우거진 숲속 언덕에는 기도바위가 있었다. 모습이 기이하고 성스러워 아녀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 바위 앞에 초를 켜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렸다.

지금 삼청각 근처에는 청룡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 『동명연혁고』에 따르면 김좌근金左根, 1797~1869이 창건하였다고 하며, 1920년대에는 주지 박묘상朴妙相과 비구니만 있는 절이었다. 문인과 학자들은 청룡암에서 글을 쓰거나 휴양을 하며 머물렀다. 1920~30년대 성북동 풍경을 묘사한 기사와 이태준이 1939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 「딸 삼형제」에 청룡암이 등장한다. 소설가 춘원 이광수는 청룡암에 방을 얻고 글을 쓰곤 했다.

조선시대 말 국어학자인 이윤재李允宰, 1888~1943는 한글보급에 적극 나서며 민족운동을 했다. 어느해 수개월이나 준비했던 조선어 강습회가 취소되자 청룡암으로 길을 나선다. 이윤재는 1934년 여름, 신문에 연재한 글에서 청룡암을 일러 큰 골짜기가 깊숙하고 그윽하며, 숲과 샘이 맑아 정취가 빠지지 않고, 경도[서울]와 가까이에 있지만 인적이 드물고 시끄럽지 않은 곳이라 하였다.[6]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7 PM 페이지 19 진성CTP 2400DPI 175LPI



숙정문

삼청동 막바지를 빠저나와, 꼬불꼬불한 산길로 하야 다 헐어지고 옛터만 남아 잇는 숙청문(북대문)에 이르러 땀을 거치고, 그 등성이를 넘어 나려다보이는 골자기로 향하야 청간을 연하야 우거진 송림사이로 나려서니, 여기가 곧 청룡암이다. … 탑은 칠층으로 되어, 고高가 십칠척 광폭廣幅이 사척 오촌이며, 제이층에는 연화를 새기엇고, 제삼층에는 불상을 새기엇고, 제사층에는 그속에 다보보살의 상을 간직하고, 제오층에는 헌물 및 묘상 수서의 발원문을 간직하엿다. 탑의 이름을 동보탑이라 하니, 경주 불국사에 잇는 다보탑으로 가치 알아서는 안된다. 다만 거기에 다보불상을 모신 까닭으로 이름이 된 것이다.

이윤재, 「성북청룡암에서」, 1934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20 진성CTP 2400DPI 175LPI

청룡암에서 삼선교 방향으로 쌍다리에 못 미쳐서 미륵당이 있었다. 미륵신앙은 중생을 구제하는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하길 바라는 신앙이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삼국시대부터 국가에서는 미륵사를 세우고 미륵불을 모셨다.

조선시대 후기 독립운동가인 임규林圭, 1867~1948의 시[7]에 '10년의 세월을 성북동 모퉁이에 살고 있으니 청룡암, 미륵당이 바로 골목과 통한다' 는 구절이 있고, 1931년 신문에도 '시외 성북리 미륵당' 이라는 기록[8]이 나타난다. 시인이자 불교학자인 이원섭李元燮, 1924~2007은 한 때 미륵당에서 하숙을 하기도 했다.[9] 미륵당에는 1700년대 왕실에서 봉안한 석조미륵불좌상이 있었고, 느티나무와 정자가 있는 마당 옆으로 폭포가 떨어졌다. 지금은 미륵당 자리에 동방대학원대학교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있다. 법당에는 300년 전에 봉안되었다는 미륵불좌상이 모셔져 있다.

"고종황제가 가마타고 동소문으로 나와서 개울 따라 좁은 길로 미륵당으로 온 거야. 황제 몸소 본인이 나인들하고 왔어. 그래 부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그 뭔지 알 수 없지마는 대체로 조선왕조가 후에 외침外侵에서 벗어나고 이런걸 기도 했겠지. 기도를 끝내고 났는데 여름철이라서 갑자기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졌단 말이야. 그 옆길로 해서 성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동네에 아주 키가 구척 장신에 힘이 세기로 소문난 청년이 하나 있었다고. 그 청년을 절에서 불러 온 거야. 이제 황제를 업고 물을 건넜어. 나머지 가마꾼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건넜겠지. 그 업어서 건넨 사람이 나이 구십이 지났었을 때 내가 만나봤다고. 그때(황제를 업었을 때)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이었던 힘센 청년이었는데 나이가 구십이 된 거야. 나라도 바뀌고 말야. 그때 미륵당 밑에 집이 몇 채가 쪼그맣게 있었는데 거기서 살았어."

서세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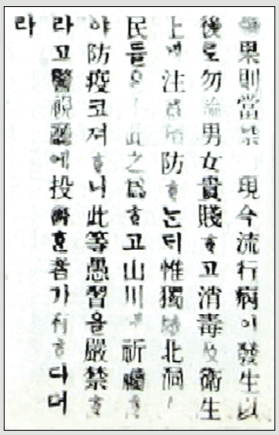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21 진성CTP 2400DPI 175LPI

신문기사 속 성북동

자연에 대한 경외가 미신이라고 배척받아 경찰에 체포된 일도 있었다. 1909년 황성신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로 병을 고치려는 성북동 사람들을 경찰(당시 경시청)에 고발한 기사가 나온다.

지금 유행병이 발생한 이후로 무릇 남녀귀천을 불구하고 소독과 위생상에 주의예방 하는데, 유독 성북동 인민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산천에 기도하여 방역하고자 하니 우매한 풍습을 엄히 금지하라고 경시청에 투서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

황성신문, 1909.10.01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22 진성CTP 2400DPI 175L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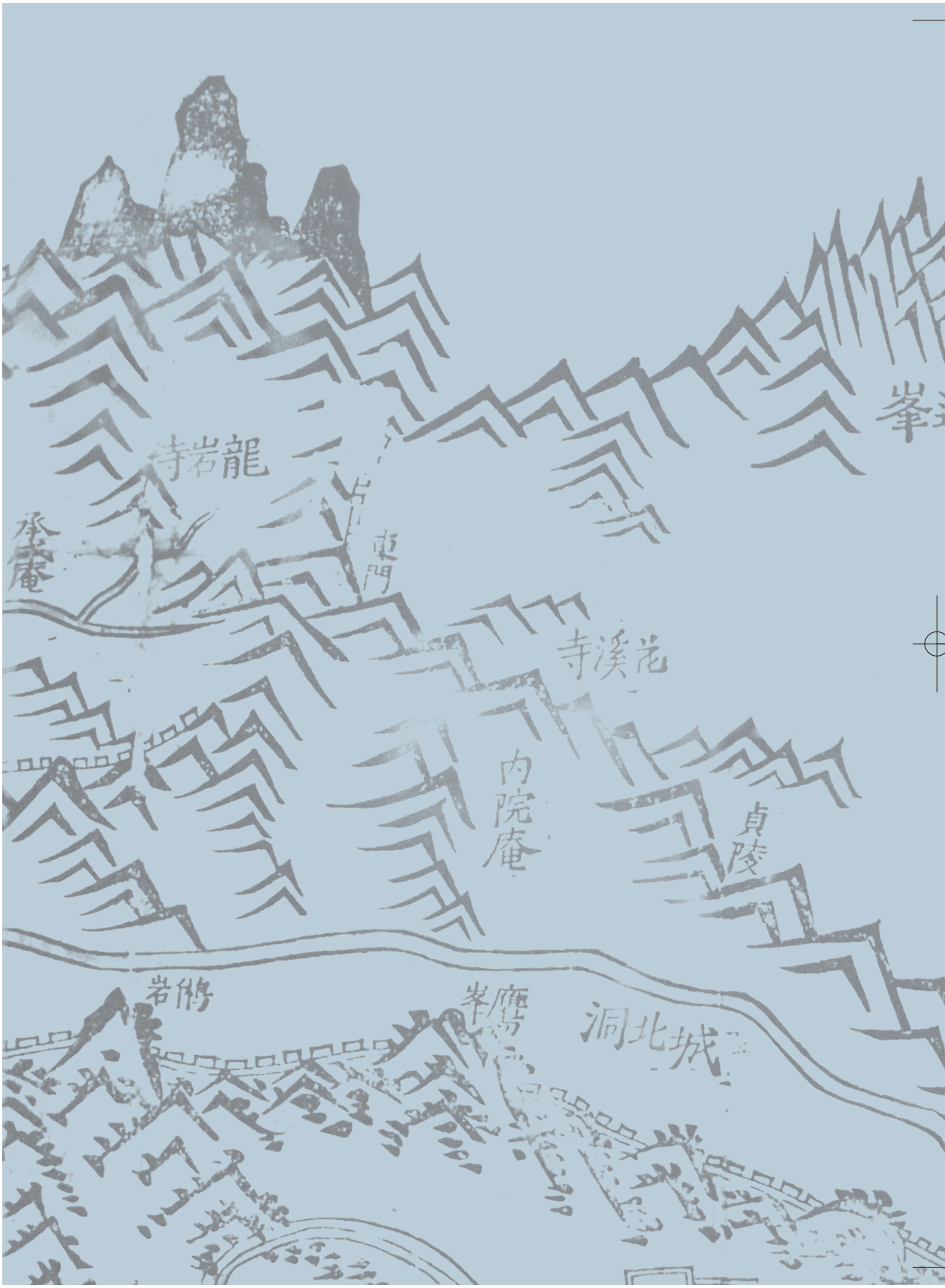
옛 마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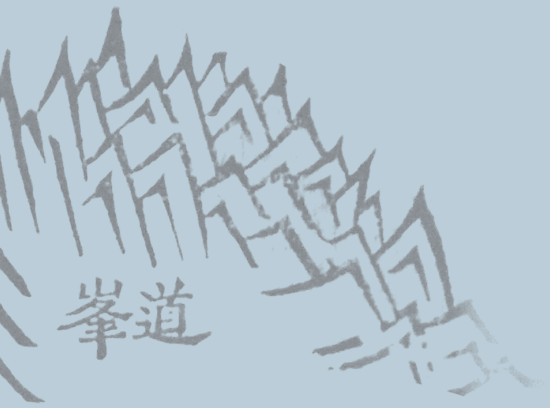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23 진성CTP 2400DPI 175LPI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24 진성CTP 2400DPI 175L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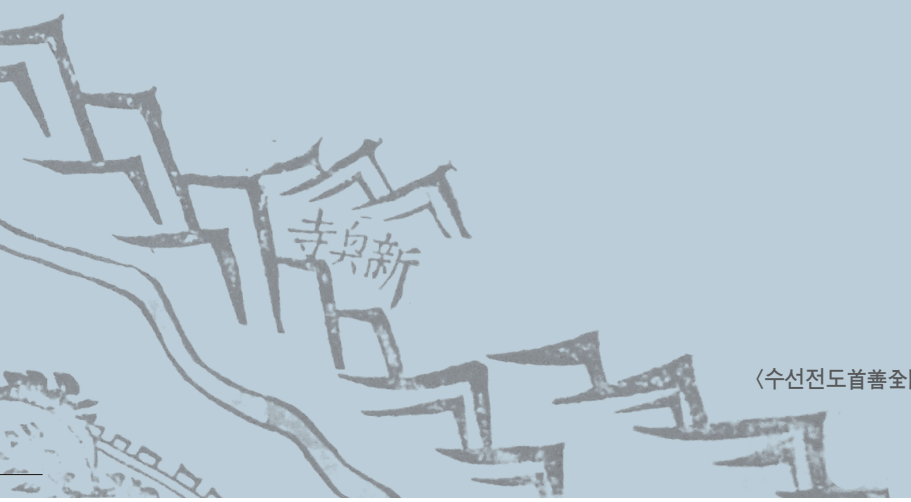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25 진성CTP 2400DPI 175LPI



낙목한천의 암석미

별장과 나들이



〈수선전도首善全圖〉(1892) 성북동 부분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26 진성CTP 2400DPI 175LPI

낙목한천落木寒天의 암석미岩石美•

별장과 나들이

조선시대 도성 풍속에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산이나 계곡으로 나아가 유람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를 꽃놀이[花柳]라고 하였다. 북둔(성북동)의 복숭아꽃, 필운대의 살구꽃, 동대문 밖의 버들, 천연정의 연꽃, 삼청동과 탕춘대의 수석水石이 유명하였다.[10]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의 복숭아는 불로장생不老長生하게 하는 선과仙果이다. 봄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에 날리면 눈에 보이지 않던 바람도, 햇살도 화사한 분홍빛으로 물들일 정도였다.

조선후기 정조는 화원들에게 한양의 지리와 풍속을 그리게 하여 『성시전도城市全圖』를 간행하고, 문인들에게 시를 짓게 하였다. 실학자 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가련할사 북둔의 풍속에 복숭아나무를 심지 않음을 수치로 아는구나最憐城北屯邊俗 不種桃花以爲恥' 라고 읊었다. 뛰어난 문장으로 중국에까지 이름을 알린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성시전도를 보고 백운시百韻詩를 지었다. 정조로부터 '아雅(아름답다)' 라는 호평을 받은 이 시에서 그는 북둔의 복사꽃이 천하에서 가장 붉다 감탄하였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27 진성CTP 2400DPI 175LPI

*조지훈, 「돌의 미학」

혜화문 밖에서는 무엇을 보았는가 惠化門外何所見
푸른 숲이 흰 모래밭에 연하였네 點綴靑林白沙嘴
북둔의 복사꽃 천하에서 가장 붉고 北屯桃花天下紅
푸른 시냇가엔 울타리 짧은 집들 短籬家家碧溪沚
금성천부라 참으로 아름답고 金城天府儘美哉
태평성대라 또한 즐거웁구나 壽域春臺亦樂只

이덕무, 「성시전도」

앵두꽃과 자두꽃도 복숭아꽃에 지지 않고 화려하게 피었으니, 봄마다 성북동은 신선들도 찾아올만한 풍경이었다. 어느 것이 복숭아 꽃잎이고 어느 것이 화류객의 도포자락이고, 또 어느 것이 여인들의 치맛자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성북동 골짜기에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가득 했다.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는 당시의 감회를 시구로 남겼다.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8 P M 페 이 지 28 진 성 CTP 2400DPI 175LPI

척오*의 땅이라 성 동쪽에는 城東尺五地
만 수풀에 일제히 꽃이 피었네 花發萬林齊
불승을 당장에 깨칠 것 같고 佛乘如將悟
선원도 또렷하여 희미치 않네 仙源了不迷
차간*엔 파란 이끼 어울려 있고 乳苔叉礪合
격산*은 검은 눈썹 나직하구나 眉黛鬲山低
그림인 양 마을 띠집 조촐도 하니 畫畫村茅潔
종당에는 땅을 빌려 깃들 거로세 行當借地棲

김정희, 「북둔에서 도화를 구경하다北屯看桃花」

*척오 : 가까운 곳 / 차간 : 서로 교차된 개천 / 격산 : 가로 막힌 산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29 진성CTP 2400DPI 175LPI

도성과 가까운 명승지로 알려지면서 세도가들의 별장과 정자가 성북동의 풍광에 더해졌다. 의친왕 이강의 별궁인 성락원과 조선시대 문신 민영환의 별장 등 왕실과 양반들의 별장이 이곳에 있었다. 조선후기 문신 김윤식이 쓴 일기를 모은 『속음청사續陰晴史』에는 조선후기 세도가였던 이지용과 이근택의 별장이 동소문 밖에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지용은 성북동에 있던 별장에 내외국 관리들을 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11] 1907년 7월,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사법권과 경찰권 위임, 군대 해산 등 국권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정미늑약丁未勒約을 강요하였다. 이에 친일파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을사오적乙巳五賊인 이지용과 이근택의 별장도 불에 타 사라졌다.

서울에는 부자양반이 많이 산다. 그러기에 서울 근방에는 부호의 별장이 수두룩하다. 조선인 부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는 수석水石이 좋은 성북동 일대를 가르치리라 … 어쨌든 성북동 안에는 십만장자의 별장이 14개소가 있다는 것만큼 온 곳이 모두 눈을 부시게 하는 별장이다.

〈부호의 별장지대 풍경, 성북동 일대〉, 『삼천리』, 1935

1935년 잡지 『삼천리』에는 성북동 별장을 탐방한 글이 실렸다. 기사에서는 가장 산수 좋은 자리에 지어진 백인기 별장, 2층 양옥집으로 지어진 백상규 별장 등 14곳의 별장을 소개하고 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30 진성CTP 2400DPI 175LPI

맑고 푸른 기운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은 병조판서, 형조판서 등 고위요직을 두루 지낸 인물이다. 1884년 최초의 신식해군인 해방영海防營을 설치하였고, 1896년부터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같은 열강들에 특사로 파견되어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다.
종로구 전동典洞(현재 견지동)에 살던 민영환은 성북동에 별장 '음벽정飮碧亭' 을 두었다. 음벽정에는 명사들이 찾아와 풍류를 읊었다. 청나라에서 파견된 원세개袁世凱, 1859~1916는 조선 군영의 일을 맡아 보며 조정에 출입하였다. 조선의 내부 사정에 밝았고, 왕실과 밀접하였던 원세개는 민영환과도 교류가 있어 음벽정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민영환은 1898년부터 독립협회를 후원하고, 개혁을 주장하다가 반대세력에게 밀려났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경고대한2천만동포유서警告大韓二千萬同胞遺書' 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주인을 잃었지만 음벽정의 명성은 더해갔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도 가까운 성 밖 나들이 장소로 들리곤 하였다. 1905년 황성신문에는 동소문 밖 '민보국 정자' (민보국은 민영환을 일컬음)로 미국 여성 일행이 유람을 나갈 때 경찰과 헌병이 호위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12] 민영환이 설립한 홍화학교의 운동회가 음벽정 넓은 터에서 열렸고, 사회단체의 모임 장소로 쓰이기도 하였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31 진성CTP 2400DPI 175LPI

"음벽정이라함은 푸르름, 바로 색깔 아니예요, 푸르름[碧]을 마시는[飮]. 그러니까 사방이 나무와 푸른 산으로 둘려 있었어요. 살림을 살 수 있는 99칸 거대한 한옥을 짓고, 약간 언덕이 있는 데는 양옥을-아름다운 양옥이었어요-기둥을 멋지고 우아한 집인데 마당에는 보기 드문 정원석, 괴석을 여기저기 놓았고, 원시림의 물을 받아서 연못을 만들고. 그 음벽정에 청나라 대장군 원세개를 불러서 같이 연회를 하며 외교를 한거에요."

서세옥 인터뷰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32 진성CTP 2400DPI 175LPI



1937년 신문에 실린 음벽정 광고

음벽정은 1920년대부터 요정(술집)으로 신문에 등장한다. 당시 서울시 내외에는 기생을 두고 영업을 하는 서린정, 조선관, 명월관 등지가 있었다. 음벽정도 기생을 둔 요릿집으로 운영되면서 사기난봉꾼들이 꾀여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유흥지로 전락하였다. 이 때문에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다. 1936년 성북정城北町을 관할하는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새로 요리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음벽정이 시설을 넓히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가 그치지 않았는지 그 다음 달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열기까지 하였다.

1939년 부주의로 한옥 건물 한 채가 전부 타 버렸다. 1946년 무렵에는 유사 종교 단체인 정민회正民會가 음벽정에 근거를 두기도 하였는데,[13]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33 진성CTP 2400DPI 175LPI

요리점으로 음벽정은 이왕 허가된 것이지만 앞으로 다른 요리점은 허가하지 안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통행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는 것도 일찍 느껴온 바이지만 음벽정도 다리를 놓고 자동차를 돌릴 수 있는 넓은 마당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주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리하기를 가급적 권고는 하겠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아일보, 1936.08.09

관리가 되지 않아 남아 있던 석물이 없어지고, 건물도 훼손되었다. 음벽정 마당에서 국보 원공국사승묘탑圓空國師勝妙塔이 발견되어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와다和田가 남창동 자택에 두고 있던 탑으로 어떤 연유인지 몇 년 만에 이곳에서 발견된 것이다.[14] 음벽정 터 1천여 평은 1960년대 기업가 이홍근이 매입하며 주인이 바뀌었다.

한말 우국지사의 별장에서 요정으로, 우리 문화를 보존하는 미술관으로, 음벽정의 역사는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 동안 많은 일을 겪은 우리나라의 어지러웠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듯하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34 진성CTP 2400DPI 175LPI

더 알아보기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 - 동원 이홍근

개성에서 태어난 이홍근李洪根, 1900~1980은 뛰어난 사업가이자 문화재 수집가로 평생을 살았다. 30대에 개성박물관장으로 있던 우현 고유섭에게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문화재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근검절약이 생활에 배어 있었지만 문화재 수집과 보존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 소장 문화재를 되팔거나 교환한 일도 없었다. 내자동에서 성북동으로 오며 1971년 석조 건물 두채를 짓고 동원미술관을 건립하였다.[15] 자신이 머무는 방의 난방비는 아끼면서도 동원미술관의 수장고에는 냉난방과 제습시설을 설치해 소장품들의 온습도를 유지하였다. 당대에 간송 전형필, 호암 이병철, 동원 이홍근은 3대 수집가로 알려졌다. 평소 자신의 소장품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우리 민족의 문화가 깃든 유산임을 늘 강조하였고, 작고 후 5천여 점이 그의 유언에 따라 국가에 기증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작품에는 겸재 정선, 오원 장승업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그림과 공예품, 도자기 등 다양한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동원기증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35 진성CTP 2400DPI 175LPI



이종석 별장

이종석李鍾奭, 1875-1952 별장은 조선시대 말기 거상들의 생활과 별장주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이종석은 조선시대 후기 마포에서 젓갈장사를 해서 큰돈을 번 상인이다. 마포는 17세기부터 미곡의 집산지로 경강상인들의 상업활동이 활발하였다. 조운漕運을 통해 서울로 모인 전국 물산은 다시 전국으로 분배되어 보부상과 소매상이 각 지역을 다니며 팔았다. 특히 어물과 새우를 마포에서 절여 유통하였고, 이는 마포상인들에게 큰 이익을 안겼다.

장교동에 살던 이종석은 성북동에 여름 별장을 두었다. 소나무와 전나무가 울창한 낮은 언덕을 뒤로하고 안채와 행랑채를 들였다. 행랑마당의 문을 거쳐 안마당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분리된 구조였다. 동남향인 안채는 우측 끝으로 누마루를 한 칸 낸 형태로 지었다.

1960년 기업가 이재준이 매입하였고, 1977년 서울시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되었다. 1985년에 덕수교회에서 인수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36 진성CTP 2400DPI 175LPI

일제강점기 기업가인 친일파 백인기는 성북동에 별장을 몇 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한 채가 성북동 323번지이다. 후원의 산림山林만 10여 만 평에 달하였고, 별장 입구에 화강석으로 산문山門을 쌓았다. 후원에는 수백 년 묵은 노송이 우거졌고 맑은 물 위에는 돌다리가 놓였다. 해방 후 '청암장' 이라는 고급요정으로 운영되다가 1949년 12월 고급요정 폐지방침(내무부령)이 내려 대중요리점으로 업태변경을 하였다.[16] 이후 잠시 사설도서관으로 쓰였으나[17] 한국전쟁 때 소유자가 떠나게 된다.

이 집을 1951년 김영한金英韓, 1916~1999이 당시로서는 큰돈인 650만원에 인수하여 다시 '대원각' 이라는 요릿집을 열었다. 시인 백석이 사랑한 여인으로도 유명한 김영한은 조선권번券番에서 전통 기생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로 대원각을 경영하며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하였다. 대원각은 1972년 7·4 남북조절위원회의 연회를 베풀기 위해 지어진 삼청각과 함께 각 정당의 회의 장소이자 밀실정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유명했다.

고급요정으로 명성을 떨쳤던 대원각은 1996년 법정스님에게 기증되었다. '길상사' 는 법정스님이 지어준 김영한의 법명 길상화吉祥華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7천여 평에 달하는 땅과 건물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 편입되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37 진성CTP 2400DPI 175LPI



길상사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38 진성CTP 2400DPI 175LPI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성북동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39 진성CTP 2400DPI 175LPI

어서 겨울 가고 봄이 와
잔디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라

성북동의 변화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40 진성CTP 2400DPI 175LPI

어서 겨울 가고 봄이 와 잔디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라*

성북동의 변화

여기는 사방에 산이 둘러 있고 송림이 울창하며 그 시에는 수다數多의 양옥洋屋과 초가草家집이 있다. 양옥집은 모두 학교이며 초가집은 조선인 가옥이다.

동아일보, 1927.08.30

1920년대까지만 해도 초가와 양옥이 드문드문 있는 한가한 동네였던 성북동은 1930년대를 지나며 한옥, 양옥 할 것 없이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36년 일본의 경성시 구획정리 과정에서 성북동1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개념의 택지조성사업이 실시되었다.[18] 4대문 안으로만 국한되었던 시내구역이 혜화문 밖으로 넓혀졌다. 혜화문을 통해 오가는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주변으로 집장사들의 성냥갑 같은 기와집이 빽빽하게 지어졌다. 화물을 나르는 트럭의 이동이 잦았고, 이곳저곳은 공사장으로 바뀌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41 진성CTP 2400DPI 175LPI

* 김향안. 「봄과 더불어 꽃잔치를」



삼선교와 돈암동 일대(1939년 무렵)

거리의 변화만큼 세계의 정세도 빠르게 변화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태평양 전쟁은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징용되었다.

나는 주물공장의 화부로서 현지 징용이 되었다. 내 평생은 매연에 가득 찬 이 주물 공장에 발목이 묶여진 셈이었다. 전쟁이 계속되자 물자 부족으로 생활은 궁핍 상태로 빠져 들었다. 물자 부족인데도 성북구는 발전되고 개발되었다. 성냥곽 같은 집장사 기와집이 수 없이 늘어났다. 그 이유인즉 시골 부자들이 농토를 팔아 갖고 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정한숙, 「성북구 성북동」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42 진성CTP 2400DPI 175LPI

더 알아보기

민족 자존심을 지키다 - 이길용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세계기록 보다 5분 23초나 앞선 기록이었다. 그러나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는 슬픔은 월계관을 쓴 마라톤 영웅 손기정을 시상대에서 고개 숙이게 하였다.

동아일보 기자 이길용李吉用, 1899~?은 당시 부장으로 있던 현진건과 상의하여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실었다. 이 사건으로 한민족 모두가 통쾌해 하였지만 동아일보는 무기정간을 당하고, 사장과 주필, 편집국장이 사퇴하고, 사원 8명이 구속되었다.[19]

마산에서 태어난 이길용은 일본에 유학하고 돌아와 철도국에서 일하며 임시정부 기밀문서를 철도로 배달하는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동아일보 입사 후 일장기말소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직장을 잃었다. 해방 후 복직하여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던 중 북한으로 납치되고 만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43 진성CTP 2400DPI 175LPI

더 알아보기

한국전쟁과 성북동

한국전쟁 때 성북동의 상황은 삼선교에 살던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성칠金聖七, 1913~1951이 남긴 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950년 6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기록에서는 서울의 전황戰況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김성칠은 『조선역사』(1946)를 펴내며 우리 민족사의 복원에 힘썼고, 1950년에는 '지명조사연구회'를 만들어 우리 고유의 지명을 조사하였다.

1950년 6월 28일 멀리 미아리고개로 자동차보다도 크고 육중해 보이는 것이 이곳을 향하여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것이 대포알을 맞아도 움쩍하지 않는다는 이북의 탱크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내려다보이는 돈암동 거리엔 이미 사람의 나다니는 양이 보이고 전찻길엔 이상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떼지어 행진하고 있다.

1950년 9월 23일 밤이면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자동차와 화물자동차가 쉴 새 없이 북으로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다. 그도 벌써 여러 날 밤 째인데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화물이 흘러나갔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는 밤마다 수없이 많은 죄수들을 걸려서 끌고 가는데, 보아하매 상당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으나 꼬지꿰듯 줄에 엮어서 강행군을 시키고,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지체하는 일이 있으면 욕설을 퍼붓고 채찍으로 갈기며, 무넘이고개(지금의 수유리)를 넘어서는 정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해 버리고 간다는 것이다.

김성칠, 『역사 앞에서 : 한 사학자의 6 · 25 일지』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44 진성CTP 2400DPI 175LPI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곧 사상의 대립을 앞세운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1950년 6월 25일, 성북동 골짜기에도 포성이 울렸고, 혜화문에서 돈암동으로 이어지는 전찻길에는 탱크와 보병들이 가득했다. 인민군에게 반동분자로 몰려 죽임을 당하거나 어제는 이웃이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총살을 당하기도 했다. 창경궁 앞 공터에는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다.

동두천에서 양주, 의정부, 미아리로 이어진 길은 북한군의 남침경로 중 하나였다. 서울 북동쪽의 나들목이었던 성북동은 북으로 향하는 중간통로가 되었다. 북단장(현재 간송미술관)의 넓은 공터에는 기마부대가 주둔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성북동에는 외부로 비밀이 유지된다는 뜻의 안전가옥安全家屋, 이른바 '안가'가 있었다. 서울수복 하루 전인 1950년 9월 27일에는 '신변안전과 보호'라는 명분과 '친일행위'의 죄목을 내세워 정부와 학계의 많은 인사들이 납북되었다. 안가에 감금당한 사람들이 밤마다 미아리고개를 넘어 북으로 끌려갔다. 성북동 주민 중 납북된 사람에는 시인 조지훈의 아버지 정치가 조헌영, 손기정 일장기말소사건의 이길용 기자 등이 있다.

'뚝방촌, 달동네, 무더기촌, 이재민촌, 희망촌'

어느 쪽이 승자이고 어느 쪽이 패자인지 모를 전쟁은 중단되었지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쟁을 피해 뿔뿔이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고향 성북동으로 돌아왔다. 온통 쑥대밭이 되어 인적이 끊긴 듯 조용했던 마을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45 진성CTP 2400DPI 175LPI



북정골

벌써 20여 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박물관에 수위자리가 비어 있어서 공채시험을 본 일이 있었는데 그때 1등으로 합격돼서 채용된 새파란 젊은 청년이 있었다. … 이 젊은이가 그 후 20년 가까이 박물관 식구 노릇을 하는 동안 충직한 수위로서 남긴 이야깃거리가 하나 둘이 아니지만 집이 없어서 성북동 어느 산마루에 어설픈 판잣집을 지었다가는 뜯기고 뜯길 때마다 노숙을 해야 하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박물관 근무를 거른 일은 없었다. 어느 해인가 장마철에 집을 뜯긴 정상이 하도 딱해서 박물관 발굴 때 끌고 다니는 작고 허술한 천막 하나를 빌려 준 일이 있었는데 장마가 갠 후에 돌려온 천막 꼴을 보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었다.

최순우, 「이충구씨」, 1974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46 진성CTP 2400DPI 175LPI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내려온 피난민도 성북동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판자 몇 개로 집 모양새만 겨우 갖추고 살았다. 그 모양이 상자 같아서 '상자집', 상자를 일컫는 일본어 하꼬[箱;はこ]를 붙여 '하꼬방'이라 불렀다.

196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산비탈이나 언덕에 우후죽순 판잣집을 세우고 품을 팔며 살았다. 판자촌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화재나 침수, 도난 같은 사고가 잦았고, 정부는 1954년 무허가건물 철거·정리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판잣집도 겨우 짓고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곳에 다시 판잣집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성곽 바로 아래까지 낮은 지붕이 빈틈없이 이어졌다. 마을을 이룬 사람들은 집주변에 텃밭을 가꾸고, 집을 정비했다. 좁은 골목과 회색 담벼락이 모인 마을에 시장이 서고, 작은 상점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상하수도와 생활기반 시설이 갖춰지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물지게와 똥장군을 진 품팔이꾼들이 물을 팔러 다니고, 분뇨를 치웠다. 성곽 아래 구덩이를 파고 묻은 분뇨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마가 지는 날이면 하숫물이 개천까지 흘러내렸다. 이 때문에 성곽 아랫동네 북정골은 '똥골'이라고도 불렸다.

1960년대 북정골 건너편에는 호화주택들이 들어서며 길을 사이에 두고 부촌과 빈촌의 격차가 생겼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군軍과 정부 관련 인사들이 청와대와 가까운 성북동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경제성장기인 1970년대에도 계속해서 재벌의 대저택과 대사관저가 모여 성락원 일대(꿩의 바다)는 부촌으로 탈바꿈하였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47 진성CTP 2400DPI 175LPI

"5.16 혁명 때 이 꼭대기가 이제 도둑놈 촌이라고 하잖아. 돈 있는 사람들이 집 짓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둑놈 촌이라고 하고 그러잖아. 혁명 후에는 여기가 부자촌이 되고 그랬는데 여하튼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그러데."

성북동 주민 인터뷰

성북동은 한남동과 함께 부촌의 상징이 되었고, 높은 담장과 삭막한 거리는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었다. 밀실정치의 장소였던 대원각과 삼청각에는 연회가 끊이지 않았고, 고급승용차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마을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워진 담장과 부유한 생활을 조롱하며 호화주택이 모여 있는 마을을 '도둑촌'이라 불렀다.

개울물 소리에 발을 적시며 나무향기에 옷을 적시면서 집으로 돌아오던 한적한 길이 지금은 복개 포장되고, 대원각을 드나드는 고급 승용차가 줄을 지어 풀스피드로 달린다. 인도가 없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걸어가노라면, 무례하게도 헤드라이트 빛이 난폭하게 비치고 지나간다.

정한모, 「성북동 골짜기」, 1969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48 진성CTP 2400DPI 175LPI



서울성곽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49 진성CTP 2400DPI 175LPI

헌데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마을과 생활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50 진성CTP 2400DPI 175LPI

헌데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마을과 생활

성북천은 개가 웅크리고 앉은 모양의 북악산 구준봉 기슭에서 시작하여 성북동과 신설동을 거쳐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하천이다. 성북초등학교 뒤로 흐르던 개천은 날이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했고, 곳곳에 약수가 샘솟았다. 대원각과 성락원 계곡 아래쪽에 있는 약수터는 물이 나오는 구멍 세 개가 나란히 있어 그 모습이 형제 같아 삼형제 약수터라 하였다. 바위 바닥을 뚫고 솟아오르는 물은 맛이 좋고 위장병에 효과가 있어 찾는 사람이 많았다.[20] 1950년대부터 수도관이 설치되었으나 급수사정이 좋지 않았다.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약수터와 공동수도에서 물을 긷거나 아침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차에서 물을 받았다. 물지게를 어깨에 지고 언덕을 오르내리다 보면 물통의 물이 반 밖에 남지 않아 고생스러운 걸음을 두세 번 해야 됐다. 인구가 많아지고, 골짜기 안쪽까지 집이 세워지며 약수터가 줄어들고, 성북천이 오염되자 물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가뭄과 한파라도 닥치면 물이 부족해 두 달 가까이 물이 끊긴 적도 있었다.

한편, 성북천 상류지역은 비가 내리면 잦은 수해피해를 입었다. 수시로 성북천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늘어나는 사람과 집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개되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51 진성CTP 2400DPI 175LPI

•김환기. 「신방기」



성북천 발원지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52 진성CTP 2400DPI 175LPI

그리고 수천 호에서 퍼다 쓰느라고 우물물들은 거의 밑바닥이 드러나서 겨울뿐 아니라 봄까지 물소동이 날 지경이었는데, 지난 겨울부터 꽁꽁 얼은 땅덩이를 파헤치면서 수도가 성북동 꼭대기까지 뚫고 올라온 것이다. …모두들 한시름 놓았다고 좋아들 하였으나 한 보름 지나니까나 고동만 틀면 펑펑 쏟아지던 물줄기가 자라 오줌이 되었고 며칠이 지나서는 물방울 하나 안떨어지는 병신이 되었다. 이러기를 한 달이 지나도 물은 안 나오고 수도전은 말뚝마냥 멀끔이 서 있기만 해서 그림속의 떡이 되고 말았다.

김기창, 「수도와 전화와 하이힐」, 1957

성북동은 1941년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구역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었다. 풍치지구는 도시계획법상 자연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해당 구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21] 쌍다리, 북정골은 성곽과 산자락에 잇닿아 있고, 풍치지구에 속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었다. 1955년 운수교를 기준으로 성북1동과 2동으로 나뉘면서 운수교에서 삼선교까지 먼저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풍치지구가 속한 2동은 1970년대까지 개발이 제한되었다. 2동 주민들은 규제로 인한 피해에 항의하였고, 거주지가 늘어나며 점차 풍치지구 면적이 줄어들었다.

조선시대 후기 운행을 시작한 전차는 서울의 풍경을 바꿔놓을 정도로 큰 변화였다. 전차 길을 내면서 서울성곽과 문루가 헐렸고, 사람들은 근대적인 시간 개념을 갖게 되었다.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하였고, 종로4가에서 혜화동로터리 노선도 신설되었다. 전차가 들어오기 전 성북동 사람들은 성곽 옆 언덕(현재 서울과학고등학교와 경신중고등학교 사이)을 넘거나 삼선교의 혜화문을 지나 시내로 걸어다녔다. 혜화문은 1928년 전차가 들어오며 헐리고 만다.
삼선교에는 돈암동네거리까지 연장운행을 시작한 1941년부터 전차가 들어왔다.[22]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53 진성CTP 2400DPI 175LPI



1930년대 혜화문

버스는 1955년부터 삼선교까지 들어왔다. 삼선교를 출발지로 하루 80대가 800회 다니며 4~5만명이 이용하였고, 1971년에는 선잠단 근처까지 버스가 운행하였다.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이동이 잦아지자 개발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성북동에서 없어진 것, 아쉬운 것 하다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때는 버스는 물론 없고, 교통편이라고 하면 전차가 있었거든요. 전차란 것은 종로4가에서 혜화동 로타리, 분수 있었던 곳까지 다니는 전차가 있었거든요. 그게 1947년인가 8년인가부터 돈암동까지 전차가 다녔어요. 그게 유일한, 성북동에서 종로 나가려면 유일한 교통편이었죠."

전성우 인터뷰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54 진성CTP 2400DPI 175LPI

"여기 인도가 없었어요. 흙으로 다 있었어. 가운데 차가 다녔고. 처음에는 성북동에 90번 버스가 다녔었어. 90번 버스가 종점이 신한은행 좀 더 올라가서 삼거리 금녕약국까지 안가고 거기가 종점이었다고. 그 다음에 84번이 있었다고. 84번은 원래는 흑석동에서 혜화동까지 다녔던 것인데 여기 사람들이 자꾸 건의해서 성북동에 금녕약국이라는데 있었지 거기까지 종점이었어. 중간에 버스에 사람이 없어서 90번 버스가 먼저 없어졌어. 80년대 중반에 없어진거 같아. 그리고 84번은 쭉 다녔지 84번이 풍양운수라고 있었어. 지금 신한은행 자리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2층에 운수회사 사무실이 있었어."

유영춘 인터뷰

마전과 훈조막 일로 생업을 삼았던 사람들의 삶도 점차 변화해 갔다. 집 근처에 평평한 땅을 골라 호박, 옥수수, 감자 따위를 심어 좌판에 내다팔던 것에서 상점과 시장이 서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에는 약국 · 목욕탕 · 안경원 · 음식점 등이 문을 열었다. 1967년 삼선교-성북경찰서 구간의 복개 작업이 시작되며 현대식 상가와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 다음해 현대식 시장인 청계천 세운상가와 성북동 삼선교상가가 건립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삼선교에는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에 버금갈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었다.

1970~80년대 대저택이 모여 부촌이 형성되고, 큰 규모의 요릿집이 생겨나며 일자리가 늘어났다. 대원각과 삼청각에는 백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근무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상실이나 미용실 같은 가게들이 생겨났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상점들도 호황을 이루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55 진성CTP 2400DPI 175LPI

"1976년에는 삼선교에서 여기(홍익중고등학교 앞)까지 오면서 의상실이 한 4개인가 있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라 그럴까 7~8년 그 정도 될 때는 한 열 몇 개가 생겼어요. 성북동이 아마 부촌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전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성북동 하면 부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대원각이랑 삼청각 거기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그때가 제일 장사가 잘 됐지."

김남숙 인터뷰

상점들은 성북천의 복개와 도로 확장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거나 사라졌다. 1977년부터는 성북천 상류지역(운수교부터 쌍다리 방향)이 복개되었고, 1990년대까지 나머지 구간이 차츰 복개 되며 하천은 모두 도로로 바뀌었다. 넓어진 길 양쪽에는 상가건물이 세워졌다.

한편,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생태계를 복원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삼선교에서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성북천 하류를 복원하였다. 반세기 가까이 서민들이 찾는 시장이었던 삼선시장은 복원공사를 하며 주상복합상가 7개 동이 이전 · 철거되었다. 한성대입구역에서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개천에는 산책로가 생기고 꽃과 나무가 심어졌다. 성북동은 다시 자연과 사람들의 삶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마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성북천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56 진성CTP 2400DPI 175LPI

더 알아보기

그때 그 시절-성북동의 상점

선잠단과 운수교 주변으로 오래된 상점들이 몇 십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암탕' 은 성북동의 대중목욕탕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곳이다. 성암탕 보다 먼저 이북에서 온 부부가 운영하던 '삼보탕' (현재 우편취급소 근처)이 있었으나 1980년대에 없어졌다. 맞은편에는 1967년에 생긴 '경일안경원' 이 있다. 1960년대 초 돈암동 로터리에 있던 '돈암안경원' 에 이어 성북구에서 두 번째로 생긴 안경점이다.

최순우 옛집 골목 어귀(현재 원희패션)에는 중국인이 직접 경영하는 중국집 '실낙원' 이 있었다. 1980년대 새로 지어진 상가 건물로 자리를 옮기며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하였으나 고향인 대만으로 돌아가면서 문을 닫았다. '옛날중국집' 은 성북치안센터 맞은편 골목에 있는 음식점으로 35년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순우 옛집 골목은 '두부골목' 으로 불렸다. 노부부가 하는 두부가게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처음에는 돈암동 두부공장에서 두부를 떼어다 팔다가 나중에는 이곳에서 직접 두부를 만들고 리어카에 싣고 다니며 배달하였다.

성곽 앞 공터(현 성북동 쉼터)에는 혜성병원이, 성북초등학교 앞에는 금녕약국이 있었다. 혜성병원은 1980년대 도로정비와 함께 사라졌고, 금녕약국은 1989년 현재 위치(66-5번지)로 이전하였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8 PM 페이지 57 진성CTP 2400DPI 175LPI

"두부 공장하던 영감도 내가 잘 알지. 여기서 오래 장사를 했거든. 오래 했지 그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좋았어. 우리 집도 옛날에 여기가 가게 터였었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대문간을 헐어서 가게 터를 만든 거야. 그때 그 할아버지가 두부를 가게에 놔 주는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치부책에다가 적어 가지를 않고. 두부공장에서는 새벽에 오니까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가잖아. 그럼 오후에 돈 받으러 오는데 어느 집에 놓았는지 일일이 알아야 하잖아. 글을 몰라. 그래서 전부 암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의사도 되고 딸은 약사 되고. 두부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

김배영 인터뷰




우 정 집


원희패션


마 전 터
마 전 터


경일안경
762-1575


성암탕


금녕약국
762-1325
약


쌍다리 떡 방앗간
765-3249
떡
떡
떡
집


옛남 동국점

성북동 둘러보기

큰길로 나왔다. 버스와 합승이 지나가고 지저분한 가게가 늘어선 큰길. 잡화상 다음에 식료품점이 있고, 그 옆에는 이발소.양장점.미용원.약방.중국요릿집 그리고 또 식료품점이 무질서하게 늘어섰다. 헌 가구가 두어개 놓인 목공소, 견본으로 단 한 개의 쉐타가 걸려있는 편물점도 있다.

김태길, 「구름낀 하오」, 1963





두부골목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 60 진성CTP 2400DPI 175LPI



삼청각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 61 진성CTP 2400DPI 175LPI

비개인 맑은 아침인 것을 저희들만 아노라

시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62 진성CTP 2400DPI 175LPI

비개인 맑은 아침인 것을 저희들만 아노라*

시설

동소문 밖 성북동이 서울로 편입(1936)되기 이전까지 땅이 척박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고, 교육 · 치안 등 사회기반시설도 부족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지역 유지들은 학교를 세우기로 뜻을 모았다.

성북초등학교의 전신인 삼산의숙은 1908년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건립되었다. 당시 학교에 갈 나이가 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주학과晝學科와 일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야학과夜學科가 개설되었다. 삼산의숙은 이후 1942년에 공립 삼산국민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1946년 성북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학생수가 늘고, 규모가 커지며 학교 부지가 필요했고, 이 얘기를 들은 간송 전형필은 북단장 땅 일부를 기증하였다.

1936년에는 학령초과 아동의 교육을 위해 영명학교가 신설되었다. 원장 이의석과 교사 4명(이춘길, 유일, 이희철, 김상욱)이 무보수로 50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1955년에는 성북파출소 경관 8명이 식모살이를 하거나 가난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9~19세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야학을 열었다. 경관들은 칠판과 교과서, 공책까지 사비로 마련하여 아이들을 가르쳤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 63 진성CTP 2400DPI 175LPI

• 이태준, 「죽음」



불우아동에 배움의 길, 성북파출소가 빚은 민경친선
(경향신문, 1955.09.25)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64 진성CTP 2400DPI 175LPI

신문기사 속 성북동

등대가 되어 가르침을 펴다 - 삼산의숙

성북동 김수영씨가 각 동의 청년자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사립 삼산의숙을 창설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오직 우리 성북동은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유래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여 교육이 미칠 겨를이 없었거니와 오늘날의 문명의 다툼을 돌아보면 대풍조가 한반도에 점점 파급하여 전방인사가 급급하게 분투하야 도시나 시골에 학교건물이 계속 세워지거늘 오직 이 동네는 오히려 잠잠하여 … 이즈음에 삼산의숙이 처음으로 건립하니 어두운 동네 하늘에 등대가 되어 빛을 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깨울 길이 나타났도다."

황성신문, 1908.07.18


雜報
◎三山義立 綾北洞金洙榮氏가該洞
靑年子弟를敎育하기爲하야私立三山
義塾을創設호事는가히左右하니
實玉도琢磨를不加하면光彩를不發하
고材梓도培養을不爲하면良材를難成
하느니物皆然矣어니와人爲此焉하야
敎育으로써智能을啓發하고德을擴
充호後에야健全호人物을始成홀지라
稽經往古하면三代의隆盛이是를尙홈
이오鑑之古今하면强盛의文明이是를
懋홍이니라敎育의功化가豈不偉大며豈
不神速哉아惟我城北洞은地靑民貧하
야由來生活不贍으로敎育을不追하얏
거니와順今文明競爭의大風潮가擧半
島에漸被하민全邦人士가汲汲然憤奮
하야都野市村에庠舍繼起하거늘惟此
一洞은尙此寥寥하야譬컨디春風流蕩
에園林이勃茁호듸獨히陰崖寒谷과如
하야發榮이遲遲하니엇지慨歎홀者ㅣ
아니리오於是乎三山義塾이始立하니
黑洞天中에燈臺放光하고迷津渡頭에
蘇航이浮出하얏도다嗚呼라從今으로
父兄은敎導에盡力하고子弟는學習에
熱心하야進進不已하고蒸蒸日上하는
能力이有하면엇지乙支文德金庾信과
如호人物이不出하리오惟我同志人士
는協力勉勵하야進步를期圖홀지이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65 진성CTP 2400DPI 175LPI

더 알아보기

문학 속 성북동

소설가 상허 이태준은 성북동에 집을 짓고 살며 소소한 일상과 성북동 풍경을 글로 남겼다. 「달밤」이라는 수필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정감 가는 성북동 이웃 '황수건' 이 등장한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 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 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기어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으레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담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 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은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요 고사이마쓰까..... 히히 아메가 후리마쓰. 유끼가 후리마쓰까 히히....."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 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끼가 후리마쓰까....." 하는 판이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몰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예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이태준, 「달밤」, 1933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66 진성CTP 2400DPI 175LPI

1968년에는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정신박약어린이들을 위해 특수학교인 명수학교가 세워졌다.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교육 사업이라 주변에서 만류하였지만, 교장 최경순은 가산을 정리하여 성북동에 교실 2개와 사무실 1개를 마련하였다. 특수학교가 드물던 당시 명수학교는 정신박약어린이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이밖에도 고아원과 장학기관이 설립되었다. 구준봉과 거수봉이 가까이 보이는 골짜기(현재 우정공원 일대)에 있던 중앙배영고아원은 의지할 곳 없던 40여 명의 아이들의 보호처였다.

"대학 1학년 때(1957) 금요일이면 휴강일이어서 봉사를 다녔습니다. 친척 아저씨 한 분이 소개해줘서 성북동에 있는 고아원에 다녔지요. 일본식 2층집이었어요. 삼선교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뻐꾸기나 꿩 소리를 들으며 숲에 들어가면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허영자 인터뷰23)

성북초등학교 삼거리 성곽 아래에는 '동천학사'가 있었다. 학업을 위해 서울에 온 울산 출신 학생들의 기숙사였던 이곳은 부산에서 대동연탄을 세워 '석탄왕'이라 불렸던 정해영이 1955년 건립하였다. 고향 집 앞에 흐르던 동천강의 이름을 딴 동천학사는 1980년 철거 될 때까지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장학회와 기숙사를 운영하여 다른 지역의 장학사업에도 영향을 끼쳤고, 동천학사 출신은 법무장관, 정치가, 기업가 등 각계로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성북장학회'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교육과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성북동에 사는 문화예술인들이 1978년에 조직한 장학회이다. 작품을 팔아 장학금을 조성하여, 30년 넘은 지금까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김기창, 서세옥, 김태신 등 성북동 예술인들은 한용운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곳으로 의미 깊은 성라암의 비구니승가학원 건립에도 힘을 보탰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 67 진성CTP 2400DPI 175LPI

"성북동에 판잣집 있는 동네에 무심코 한번 올라갔다가 크게 반성을 했다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땅을 파가지고 온돌도 제대로 없이 그냥 판자를 두고. 추운 바람도 막지 못하고 있는데 온돌도 안돼서 연탄을 때고 있더라고.

학교에 갈 나이들의 학생들이 안가고 있어서 뭐라 했더니 말을 안 해. '왜 학교를 안 가냐' 물으니까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고. 학용품 살 돈도 없고.', '밥은 먹었냐' 고 하니까 '아침 밖에 못 먹었다' 고 하더라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뒤로 보니까 그런 집이 한 두 집이 아니야 성북동에. 나 자신도 반성을 하고. 나라가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안되잖아.

(당시 구청장에게)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지. 그래서 나온 것이 장학회야. 성북장학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학용품 사는 것, 밥 굶지 않게 하는 것. 그렇게 시작한 게 40년이 다 됐어."

서세옥 인터뷰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68 진성CTP 2400DPI 175LPI



동북정신병원

자연이 좋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던 성북동은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194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노이로제를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병원인 성북병원이 개원(현재 우정공원 자리)하였다. 또, 정신치료를 받는다는 말이 아직 낯설던 1960년대 정신과 전문병원이 178-23번지에 생겼다. 우리나라 여자정신과전문의 1호인 김동순金東純, 1925~과 동양의 도道를 정신치료에 접목하여 국제 학계에서도 주목 받은 이동식李東植, 1920~이 설립자이다. 부부는 1959년에 성북동 한옥을 구입하여 후원에 병원건물을 짓고, 1965년 개원하였다. 정신분석을 통한 상담치료를 하는 병원이었지만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설립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부부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진료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69 진성CTP 2400DPI 175LPI

학교와 병원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이 정비되고 문화시설이 설립되었다. 서울성곽이 복원되면서 주변에는 체육시설과 근린생활공원이 생겼다. 대사관이 많은 성북동의 특색을 살린 우정공원, 성북천 복원사업으로 생긴 산책로와 공원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주민모임이 열린다.
성곽 아래 동네인 장수마을과 북정골은 지역 대학생들의 솜씨로 벽화가 그려졌고, '벽을 넘어' 라는 뜻의 북정골 월월越wall축제가 2009년부터 대학과 시민 참여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된 사립미술관 보화각(간송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인 심우장, 성락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힘으로 보전된 시민문화유산 최순우 옛집 등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2007년에는 성북1동과 2동이 통합되며 유휴공간이 된 성북2동사무소를 서울시 최초의 구립미술관으로 개관(2009)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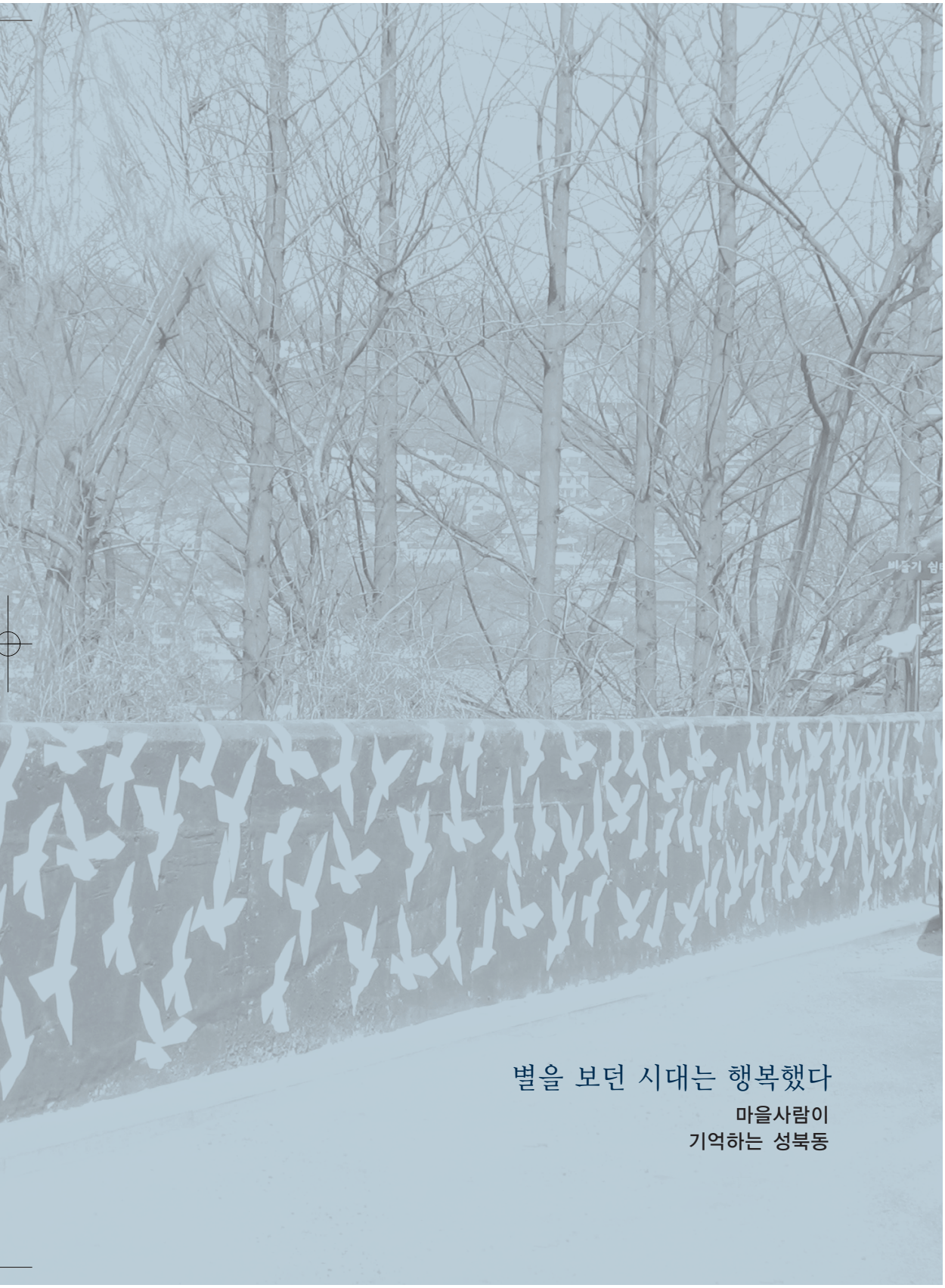
앞으로도 성북동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갈 것이다. 그러나 성북동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삶은, 옛 성벽으로부터 퍼지는 밝은 햇살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비추듯이, 성북동만의 색으로 이곳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 70 진성CTP 2400DPI 175LPI



북정골 벽화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 71 진성CTP 2400DPI 175LPI



별을 보던 시대는 행복했다

마을사람이 기억하는 성북동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 72 진성CTP 2400DPI 175LPI

별을 보던 시대는 행복했다*

마을사람이 기억하는 성북동

성북천 양쪽으로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며 한옥과 낮은 판잣집이 지붕을 잇대어 늘어서있던 성북동 풍경은 이제 큰 길 양쪽으로 빽빽하게 세워진 다세대주택과 상점들로 바뀌었다. 세월의 흐름만큼 성북동의 거리도, 풍경도 변하였지만,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난 세월을 함께 기억하는 이웃이 남아있다.

겨울이면 성곽 마을 북정골 연나산에서 연을 날리던 추억과 서커스단이 들어왔을 때 온 동네가 들썩였던 일은 옛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다. 특별한 구경거리가 없던 시절 순회공연을 다니던 서커스단의 방문은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9 PM 페이지 73 진성CTP 2400DPI 175LPI

*고은.「1950년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반가운 일이었다. 서커스 단원들은 나팔소리를 울리며 마을 사람들을 모으러 다녔고, 아이들은 그 뒤를 따라다니며 한껏 신나 뛰어다녔다. 사람들은 서커스의 아찔한 묘기에 놀라고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몸짓에 웃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쌓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생생한 성북동의 역사이다. 100년이 되어 가는 집에서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성북동 토박이와 30년 넘게 성북동에서 이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여자이발사를 만나보자.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0 PM 페이지 74 진성CTP 2400DPI 175LPI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성북동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0 PM 페이지 75 진성CTP 2400DPI 175LPI

성북동 토박이의 회상

성북 2동은 산이야. 그래서 파출소도 관할이 여기 한군데만 있었어. 1,2동을 합해서. 거기 집들이 없었어. 산속에 집들이 더러 있어서 집이 얼마 없을 때야. 행정구역이 좁았지 동네도 하나밖에 없을 때고. 그 당시 6·25 후에 사람들이 산이 많으니까 집들 짓고 차츰 늘어난 것이 그렇게 된 거야.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0 PM 페이지 76 진성CTP 2400DPI 175LPI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가 고양군이야, 경기도 고양군. 혜화동 고개 안이 서울이고 여기는 문밖이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시내 들어간다 소리 안하고 '문 안 들어간다' 고 했어.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 서울성곽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면 세검정이 나오거든. 지금은 능금을 구경도 못해도 옛날엔 세검정 일대가 '자문밖' 이라고 그랬거든. 그게 능금밭이야. 우리 어렸을 때는 능금 따먹으러 다녔어. 여기도 능선이 있어 성 타서 그리로 넘어가고 그랬지.

6 · 25 후에 이 동구여상(현재 동구마케팅고등학교)자리가 옛날에 이북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어. 집을 막 지어놓고. 그때 거기 사람들이 삼선교가서 뭐 팔기 시작한 것이 삼선교시장이 형성 된 거지. 거기가 성암탕인가? 길상사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마전터야. 그 앞이 이제 성암탕 자리에 직조 공장이 하나 있었고. 그 앞에 바위가 물이 흐르는 게 있었는데. 혜화동 명륜동 사람들이 빨래를 하러 전부 머리에 이고 와요. 그래서 빨래를 해 가지고 다 말려서 가져가고 그랬지.

이 집이 대정12년(1923)에 지은 집이야. 이렇게 고치고 하면서 사는 거야. 이 골목에서 우리 집이 제일 먼저 지었을 거야.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어 보면 여기 이 밑에 집하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딱 세 집 있었대. 그때는 차가 다니질 않았으니까 삼선교 전차가 딱 거기까지만 다니구 내리면 다 걸어 다녔어. 차가 못 들어오구. 여기도 그렇게 사람이 많질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거기(삼선교)에서 다니고 그랬지. 그때는 한신아파트가 없었을 때거든 하꼬방 지어 놓고 살았을 때니깐.

성북2동은 산이야. 그래서 파출소도 관할이 여기 한군데만 있었어. 1,2동을 합해서. 거기 집들이 없었어. 산속에 집들이 더러 있어서 집이 얼마 없을 때야. 행정구역이 좁았지 동네도 하나밖에 없을 때고. 그 당시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0 PM 페이지 77 진성CTP 2400DPI 175L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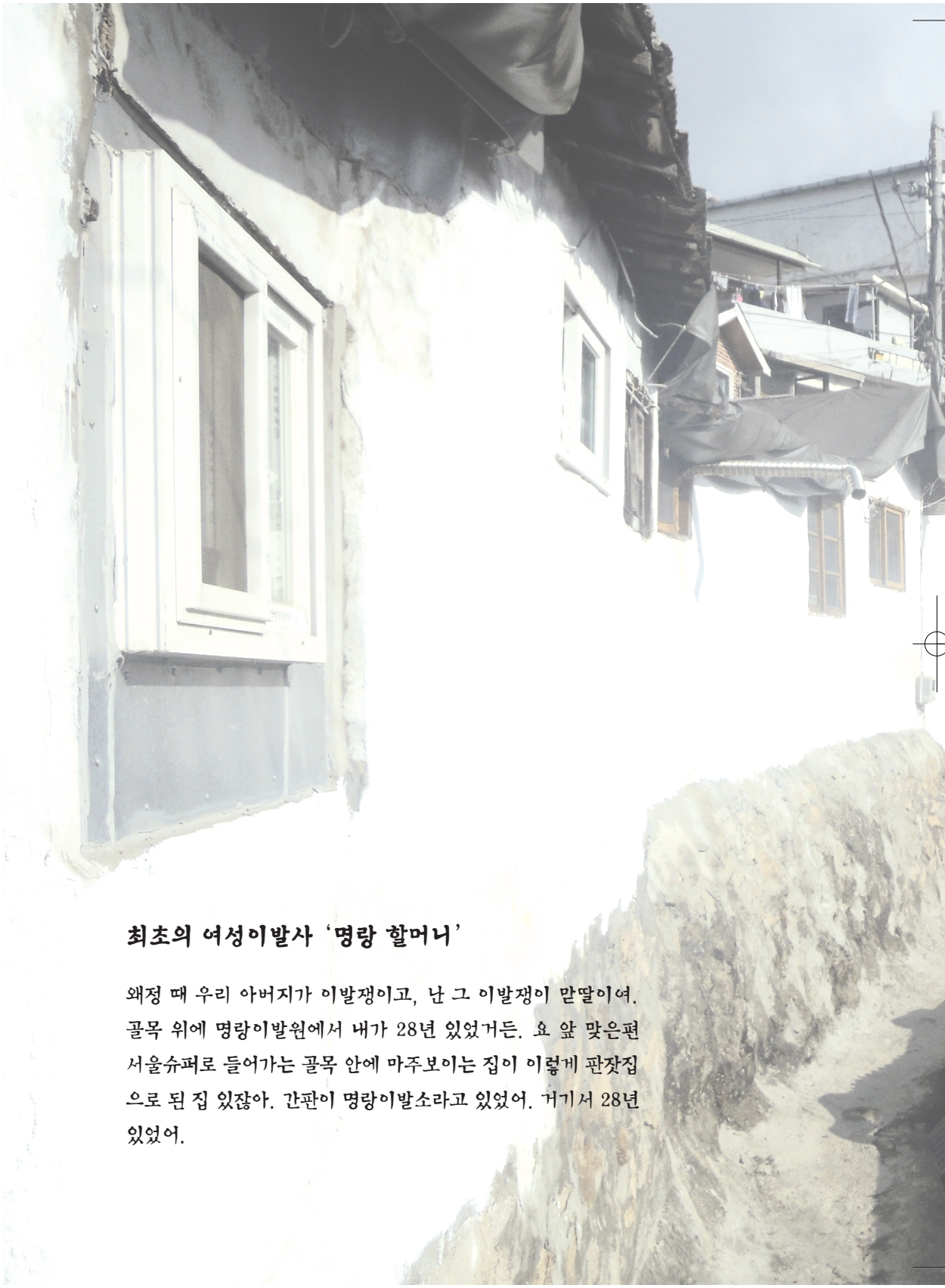
6 · 25 후에 사람들이 산이 많으니까 집들 짓고 차츰 늘어난 것이 그렇게 된 거야. 있는 사람들은 넓게 지어서 크게 집을 짓고, 여기는 기존의 집이 있으니까 지을 데가 없고, 거기는 터가 넓으니까 집을 막 지은거지. 그래서 거기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 거기가 도둑촌이라고 그런다구.

공기가 좋고 물이 좋고 경치가 좋으니까 유명한 사람도 많이 살았어. 우리 집 앞에 기름 짜는 방앗간이 4층 건물 짓기 전에 한옥이 개천가에 있었거든. 그 한옥에 성악가 이인범 씨가 살았어. 우리나라 테너로 유명한. 그 사람이 발성연습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걸음을 멈춘다구. 6 · 25 뒤에 화상을 입고 딴 데로 이사 가서 돌아갔지 아마.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자꾸 나. 그땐 참 정말 좋았어. 물도 좋고 산에 올라가서 놀기도 좋고. 길건너 집들 많이 지어 놓은데 그 일대(현재 한신아파트)가 산인데 꼭대기에 택지를 조성해서 빈터가 있었거든. 우리 어릴 때는 놀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공차고 그랬다고. 서커스가 어디에 들어왔었냐 하면은 나폴레옹제과점 있잖아. 거 건너편에 집 헐어가지고 있는 자리(현재 나폴레옹제과 옆) 있지? 그 자리가 쭉 이렇게 넓은 공터였었어. 거기에 이제 서커스단이 항상 들어와서 구경 가고 그랬어.

김배영(1935~, 성북1동 76년 거주)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0 PM 페이지 78 진성CTP 2400DPI 175LPI



최초의 여성이발사 '명랑 할머니'

왜정 때 우리 아버지가 이발쟁이고, 난 그 이발쟁이 맏딸이여. 골목 위에 명랑이발원에서 내가 28년 있었거든. 요 앞 맞은편 서울슈퍼로 들어가는 골목 안에 마주보이는 집이 이렇게 판잣집으로 된 집 있잖아. 간판이 명랑이발소라고 있었어. 거기서 28년 있었어.



성북동 골목길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0 PM 페이지80 진성CTP 2400DPI 175LPI

'마음은 동심, 마음은 젊어. 70 나이에 내 나이 같지 않다. 나이에 낯선 70. 내 나이 같지 않다. 나는 착각한다. 나는 동심. 내 나이 40. 40처럼 지금 내 나이 70에 나는 젊은 줄 알고 착각한다. 평생 지금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나는 자신 있다. 분수를 모르는 철부지 같다.'

명랑할머니 이덕훈의 일기

고향은 충청도 홍성이야. 6살적에 중학동으로 이사 와서 7살에 북만주로 가서 살다가, 11살적에 해방돼서 와서 서울서 계속 살았어. 16살적에 6 · 25 사변 나서 고향에서 3년 살다가 온 거 말고는 거의 서울 토박이지. 내가 뭐 고향이 있나. 왕십리서 대흥동으로 시집갔는데 12번째에 여기로 이사왔어. 일당 250원씩 받아가면서 얘들 넷이 성북초등학교 다 나왔어. 덕수교회 옆에 보덕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집 지을 적에 들보 하나를 시주를 했데. 그래서 그 연고로 (성북동에) 왔지. 삼선교에 전차 다니는 길이 있었고, 쌍다리 있는 데는 느티나무가 있어서 느티나무 동네이고. 쌍다리라고 하나는 돌다리, 하나는 나무다리 그리고 그 옆에는 포도밭이 있었어.

(북정골) 소방도로 나기 전에 우리 지금 사는데 거기가 쓰레기장이었다고. 동네사람들이 똥을 퍼다가 버리는 똥구덩이었어. 그 옆에다 천막집을 짓고 살았어. 심우장 쪽 골짜기로 외딴집 하나 있잖아 쬐그만하게. 내가 사는 곳이 똥골이라고 부르잖아. 우리 집(이발소) 오는 손님들이 지나다가 "이발사 아줌마 왜 거기 있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정말 거기가 집이에요" 그러면 "네. 왜 여기 살면 안돼요?" 라고 그랬지. 20년 동안 전기도 없이 살고, 35년 동안 수도도 없이 길어다 쓰고 옆집에서 받아다 쓰고. 고생은 이 세상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야. 우리 집에서 1동 파출소까지 물을 길러 왔어. 요 밑에 정자나무(성북치안센터) 있는데 공동수도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거기까지 물 길으러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81 진성CTP 2400DPI 175LPI

오고. 또 혜화동 유치원 있는데 거기 학교 앞까지 물 길으러 다니고. 공짜가 어디있어. 물 값 내야지. 요새 돈으로 100원씩은 내야지. 근데 그게 물통이 깨져가지고 집에 가면 반통씩 밖에 안 남고 그랬지. 빨래는 그냥 개천에서 하고.

성북동에는 1967년에 왔으니까 45년 살았는데 이발은 내가 57년간 했어. 최초에 여자 이발사고, 최초의 장로 이발사야. 왕십리 살면서 왜정 때 우리 아버지가 이발쟁이고, 난 그 이발쟁이 맏딸이여. (기술을) 배우길 뭘 배워. 아버지를 좋아하다 한 거지. 부엌에서 일하는 거보다 아버지랑 일 하는게 훨씬 낫더라. 아버지가 '아이고 덕훈이 애썼다' 라고, 그 소리에 한 거지. 이거(현재 운영 중인 이용원)는 '새이용원' 이고 골목 위에 명랑이발원에서 내가 28년 있었거든. 요 앞 맞은편 서울슈퍼로 들어가는 골목 안에 마주보이는 집이 이렇게 판잣집으로 된 집 있잖아. 간판이 명랑이발소라고 있었어. 거기서 28년 있었어. 나하고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거기서 그만 두고 여기에 이거 차려놓고. 여기서 하다가 병들어 가지고 그만두고 내가 하게 된 거야.

이덕훈(1936~, 성북2동 북정골 45년 거주)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82 진성CTP 2400DPI 175LPI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한옥 '돌담집'

이 집은 원채 6·25 전부터 있던 집이니까. 100년 된 집이죠. 여긴 다 호박밭이었어요. 우리 집 마주보이는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기와집이었죠.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83 진성CTP 2400DPI 175LPI



성북동 126-4번지 돌담집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84 진성CTP 2400DPI 175LPI

이 집은 원채 6 · 25 전부터 있던 집이니까. 100년 된 집이죠. 우리 고모네 집이 이 근처였어요. 옛날에는 이 집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컸다구요. 저희 아버지(도목수 조승원)도 한옥을 지으셨어요. 아버님이 옛날에 머리가 좋으셨대요. 이북에서 목공소랑 건축해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러다가 (남북분단으로 1946년 빈손으로) 넘어 오니까 그때부터 고생을 하신거에요. 부모님 고향이 평안남도에요. 이북에서 어머니가 나를 임신을 해가지고 3 · 8선이 막힌다니까 내려 오셨어요. 몸만 넘어 왔지요. 처음에는 명륜동에 살았어요. 명륜동 한옥에 살다가 여기를 16살에 왔으니까 얼마나 됐나. 6 · 25 때 전쟁 끝나고 초등학교 때였나. 6 · 25는 생생해요. 그때 미군 폭격기가 폭격을 하면 어린나이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좋아했던 거 같아. 전쟁이 온줄 몰랐었죠. 인민군 시체도 보구요. 그랬어요.

우리 집(126-4)이 있었고. 최순우 댁이 있고 그 건너편에도 집이 있었고. 여긴 다 호박밭이었어요. 이 앞에도 문만 열고 나가면 호박밭이 있어서 호박이 막 열리구요. 근데 집들이 이사 들어 와서 집을 지었는데 그거(한옥) 다 헐리고 빌라가 들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마주보이는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기와집이었는데 무당이 살았어요. 가본적은 없는데 유명했어요. 그 딸들이 멋쟁이였던 거 같애.

그리구요 홍익고등학교 위에도 산이었어요. 야산. 저가 이사 올 때는요 오빠들이 거기 눈 오면 토끼 잡으러 가요. 거기 토끼도 있었거든요. 여기 다 산이었어요. 꿩이 많아가지고 꿩의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오빠네들이랑 가면은 (오빠들이) 숨어버려요. 여자애들만 남겨놓고. 그럼 우리들은 먼저 선수를 쳐 얼른 집에 가서 다시 숨어버려. 그럼 우리 찾으러 돌아다녀.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85 진성CTP 2400DPI 175LPI

동네에서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태극기도 달렸고. 복개 할 때 주민이 돈을 많이 걷었죠. 시장은 요 건너편에 간이시장이 있었어요. 방앗간도 있구 목욕탕 있는데. 시장이 골목으로 있었는데 생선, 야채 파는 게 다 있었어요.

(외부로 나가려면) 삼선교 가서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그때는 버스가 짐차에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이 안 닫히니까 기사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때 문을 닫아요. 그러면 여자 차장들이 오라이~ 이러구 그랬어요. 그래서 가방끈이 끊어진 적이 많아요. 몸은 여기 있고 가방은 저기 있을 때도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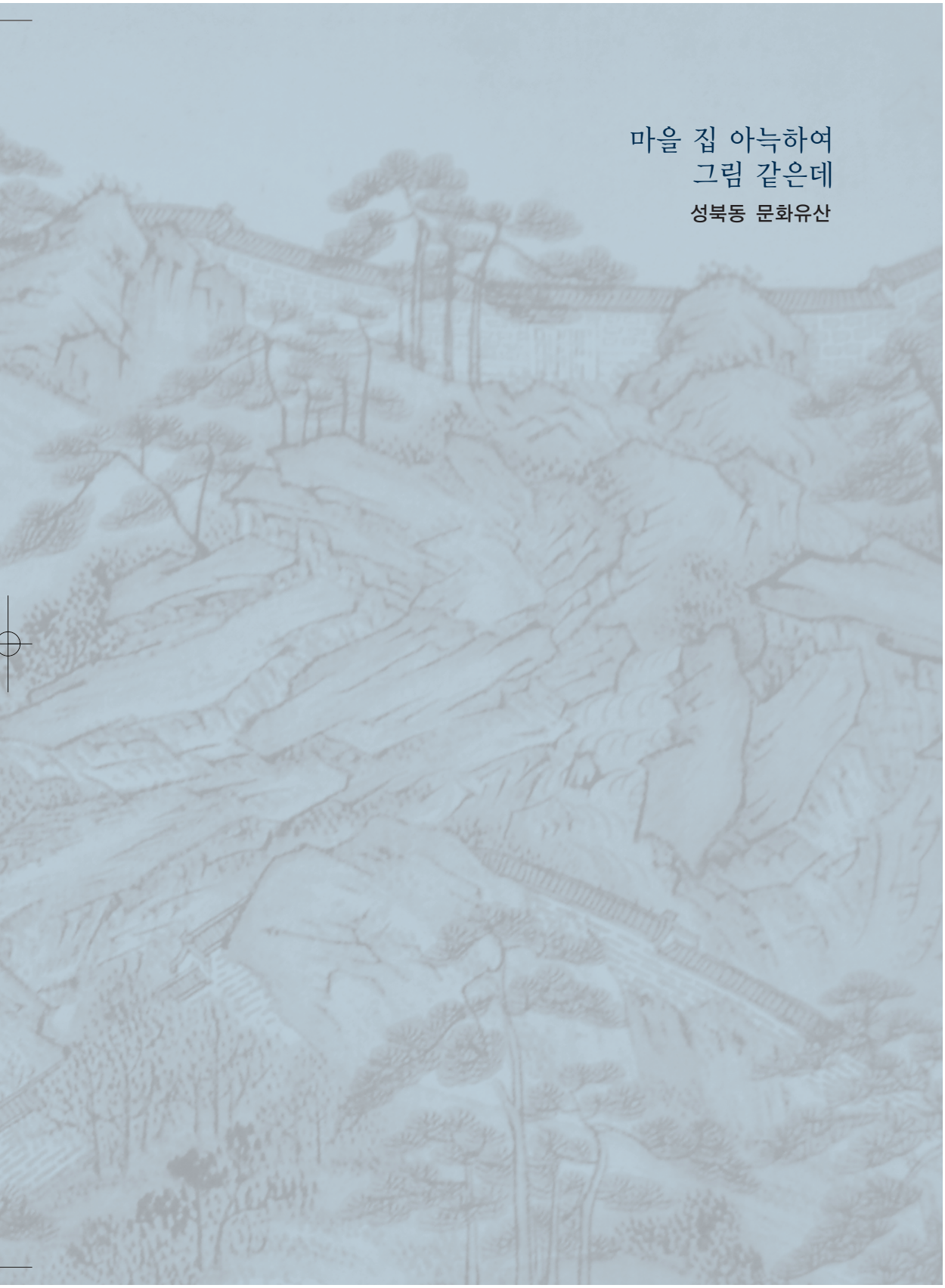
여기는 개천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개천이 깨끗했어요. 그때는 빨래도 했는데 이제 저 고등학교 2, 3학년 때서부터 물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장마철에는 사람도 떠내려 갈 정도로 많이 왔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저 위에 할머니가 떠내려 와서 돌아가셨어요.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니까 개천이 깨끗해져 장마 때 2~3일 있다 나가면 빨래하기 좋고 중학교 교복도 거기서 빨았어요.
인구가 많아지고 물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하면서부터 물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옛날이 훨씬 정다웠어요. 길이 넓어지고 이게요 한 삼십 년 전 이십년 전만해도 길이요 차가 한산했어요.

조영아(1940~, 성북2동 56년 거주)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86 진성CTP 2400DPI 175LPI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87 진성CTP 2400DPI 175LPI



마을 집 아늑하여 그림 같은데

성북동 문화유산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88 진성CTP 2400DPI 175LPI

마을 집 아늑하여 그림 같은데

성북동 문화유산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봄부터 여름에 성을 돌며 경치를 구경하였는데, 이를 순성巡城놀이라 하였다. 끊어졌던 서울성곽이 복원되고, 성북동의 문화유산이 알려지며 사시사철 이곳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심우장과 수연산방, 간송미술관, 최순우 옛집 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유산 외에도 곳곳에 성북동에 살았던 문화예술인의 교류와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 서울성곽에서 삼선교까지 걸음을 옮기며 문화예술인들의 집터와 문화유산을 만나보자.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89 진성CTP 2400DPI 175LPI

•한용운, 「산가의 새벽」



성북동 성곽(매일신보, 1934.10.04)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90 진성CTP 2400DPI 175LPI

풍수風水에 그을린 화강암의 성벽

이태준, 「성」

서울성곽

서울성곽의 공식 명칭은 서울 한양도성漢陽都城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궁궐과 종묘를 짓고, 태조 5년(1396)부터 성곽을 두르기 시작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인력을 동원하여 성곽을 세웠는데, 부실공사를 막으려고 성벽을 쌓은 돌에 공사를 맡은 담당고을과 담당자의 이름을 새겼다. 숙정문과 혜화문 구역 성곽 돌에는 '강릉江陵' 이 새겨져 있어 강원도 관할 구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숙종 때까지 몇 대에 걸쳐 구간 확장과 보수를 한 성곽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구간이 훼손되었다.

1915년부터 일제는 경성시 구역 개수계획京城市區域改修計劃을 세우고 성문과 성벽을 없애고 길을 내거나 건물을 세웠다.

해방 후 서울 경계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성곽 바로 밑까지 집이 들어섰다. 성북동 풍치보호림 지대까지 학교를 세우며 성곽을 허물기도 했고,[24] 집과 학교를 지을 때 성벽의 돌을 쓰기도 하였다. 1963년에는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었으나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1972년부터 서울시에서 성곽 보수와 개축계획을 세워 성북지구는 1976년 복원 공사를 하였다. 성곽 주변 건물이 일부 헐렸고, 주변에 녹지가 조성되었다.

서울의 북쪽 문인 숙정문肅靖門은 1968년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사건으로 그동안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2006년 숙정문을 다시 개방하면서 북악산을 따라 성북동으로 들어오는 성곽길이 열렸다. 숙정문을 대신해 북방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던 혜화문은 1929년 전차가 다니며 헐렸다가 1994년 현재 자리에 복원되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91 진성CTP 2400DPI 175LPI



서울성곽/ '강릉江陵' 이 새겨진 성돌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92 진성CTP 2400DPI 175LPI

잃은 소 없건마는
찾을손 우습도다

한용운, 「심우장」

심우장

심우장尋牛莊은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1879~1944이 1933년부터 살던 집이다.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 시인인 만해는 민족정신의 수호자이자 당대 사상계를 밝힌 등불이었다. 불교의 현실 참여를 주장하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으로, 활발한 사회활동과 집필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있는 남쪽이 보기 싫어 북향으로 집을 세우고, 일제에 돌아선 변절한 지식인들은 문 안에 들이지 않았다. '심우장' 은 불교의 선禪 수행에서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단계에서 나온 말로, '무상대도無常大道를 깨우치려 공부하는 집' 이라는 뜻이다.

정면 4칸, 측면 2칸에 팔작기와 지붕을 올린 한옥은 벽산 김적음 스님과 몇몇 지인들이 거처할 곳 없는 만해를 위해 마련해 준 것이다.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만해가 거처할 때 석정 안종원의 글씨와 일주 김진우의 그림, 위창 오세창이 쓴 심우장 편액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현재 방 위에 걸려있는 '심우장' 편액은 위창이 쓴 것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성북동에 살았던 서예가 일창 유치웅一滄 兪致雄, 1901~1998이 쓴 것이다.

만해는 해방을 보지 못한 채 1944년 심우장에서 숨을 거두었다. 심우장은 1985년 서울특별시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어, 만해를 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북동 명소가 되었다. 만해는 떠났지만 그가 마당에 직접 심은 향나무가 주인을 닮은 기개와 푸르름으로 심우장을 지키고 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93 진성CTP 2400DPI 175LPI



심우장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94 진성CTP 2400DPI 175LPI

앙상한 나무들과 까치집과 싸리 울타리와 괴석과 흰 눈과 그리고 따스한 햇볕

김용준, 「동일冬日에 제題하여」

노시산방

미술사학자이자 화가, 수필가인 근원 김용준近園 金瑢俊, 1904~1967이 살던 집이다. 근원은 우리나라 미술평론과 수필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48년 출간된 『근원수필』은 지금까지도 수작秀作으로 꼽힌다. 미술을 전공하였으나 남긴 그림은 많지 않다. 우정을 나눈 소설가 이태준, 정지용 등 문인들의 책에 삽화를 그리거나 장정裝幀을 해주었다. 이태준은 성북동 이웃으로 이사 온 근원에게 '노시산방老柿山房'이라는 당호를 지어주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95 진성CTP 2400DPI 175LPI



노시산방에서, 김용준과 가족

나는 지금으로부터 오 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여 문전에 구루마 한 채도 들어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집 뒤에는 꿩이랑 늑대랑 가끔 내려오곤 하는 것이어서 아내는 그런 무주 구천동 같은 데를 무얼 하자고 가느냐고 맹렬히 반대하는 것이었으나, 그럴 때마다 암말 말구 따라만 와 보우 하고 끌다시피 데리고 온 것인데, 기실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 늙은 감나무 몇 그루를 사랑한 때문이었다.

「노시산방기」, 1939

근원은 마당에 나무와 꽃을 심고 괴석을 두고 감상하며 지낸 이야기를 「겨울 달밤 성북동」, 「동일에 제하여」 등 몇 편의 수필에 그 시절의 정취를 담아 남겼다. 1944년 근원은 노시산방을 화가 수화 김환기樹話 金煥基, 1913~1974에게 넘기고 의정부로 가게 된다. 수화는 자신과 아내 김향안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 '수향산방樹鄕山房' 이란 이름을 붙였다. 근원은 종종 옛 집에 들러 수화를 만나곤 했다. 몇 년 뒤 수화도 떠나고 두 예술가의 정취를 잃은 집은 세월 속에 잊혀져 갔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1 PM 페이지96 진성CTP 2400DPI 175LPI

우리 성북동의 봄은 순동양적, 순조선적 봄이어서 좋다

이태준, 「고목」

수연산방

우리나라 현대 소설의 바탕을 이룬 상허 이태준尙虛 李泰俊, 1904~?이 1933년 짓고, 1946년 북한으로 가기 전까지 살던 집이다. 이곳에서 『달밤』, 『가마귀』, 『복덕방』 같은 작품을 썼다. '수연산방壽硯山房'이란 이름을 짓고 살며 느낀 소소한 행복과 이야기를 수필로 남겼다.

내가 조선집을 지음은 이조 건축의 순박, 중후한 맛을 탐냄에 있음이라. 그런 전통을 표현함에는 돈보다 일에 정을 두는 이런 구식 공인工人들의 손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임으로 … 이런 노인들은 왕십리 어디서 산다는데 성북동 구석에를 해뜨기 전에 대어 와서 해가 져 먹줄이 보이지 않아야 일손을 뗀다. 젊은이들처럼 재빠르진 못하나 꾸준하다. 남의 일 하는 사람들 같지 않게 독실하다. 그들의 연장은 날카롭게는 놀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내키는 대로 힘차게 문지른다. 그들의 연장 자국은 무디나 미덥고 자연스럽다. 이들의 손에서 제작되는 우리 집은 아무리 요새 시쳇時體집이라도 얼마쯤 날림기는 적을 은근히 기뻐하며 바란다.

「목수들」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97 진성CTP 2400DPI 175LPI





수연산방

조선시대 건축의 순박함을 닮은 나이 든 목수 다섯 사람이 지은 안채는 목수의 우직함과 상허의 안목이 깃들어 있다. 집을 짓고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문향루聞香樓, 죽향루竹香樓, 상심루賞心樓라고 쓴 편액을 걸어 두었다. 지금까지 전하는 상허가 쓰던 책장과 곁에 두고 보던 해석海石이 이 집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태현가'로 지정(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1호, 1977)되었던 명칭이 납월북작가 해금조치로 1988년 제 이름을 찾았다. 지금은 '수연산방'이란 이름으로 유족이 찻집을 운영하며 개방하고 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98 진성CTP 2400DPI 175LPI

삼선교에서 성북동 뒷산을 보며 황혼길을 걸어오는 맛

조지훈, 「돌의 미학」

심우장에서 큰길가로 골목을 따라 내려오는 길 왼편에 소설가 박태원이 원고료 대신 받은 집이 있었다. 이곳에서 사는 동안 동네 아이들에게 우리말과 독일어로 가곡 '보리수'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집을 직접 가꾸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다.

수연산방과 간송미술관을 지나면 좁은 마당 가득히 등나무, 감나무, 잣나무 따위를 심고 가꾼 화가 운보 김기창과 우향 박래현이 살던 집터가 나온다. 운보가 청주로 낙향한 뒤 부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이 집 자리에 세워졌다(2011년 현재 개방되지 않음).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99 진성CTP 2400DPI 175LPI



김기창, 성북동 집

시인 조지훈은 검정 베레모와 스틱(지팡이)으로 멋을 낸 채 저녁 무렵 집 근처를 산책하곤 했다. 납북된 아버지 조헌영이 다시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며 생을 마칠 때까지 성북동에서 살았다. 이 집에서 청록파를 이룬 박목월, 박두진과 의기투합하였고, 『청록집』의 장정은 성북동 이웃 김용준이 맡았다.

시인, 소설가로 활동한 정한모와 정한숙, 전광용은 대학 때부터 문학 동인을 결성하여 가까이 지냈다. 성북동에 살며 자주 교류하였는데, 삼선교에 있던 이들의 단골술집에는 다른 문인들까지 모여 어울리곤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소설 작가라고 알려진 김내성과 소설, 시, 시나리오 등 분야를 넘나드는 작품 남긴 한운사도 다른 문화예술인과 이웃해 살았다.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00 진성CTP 2400DPI 175LPI

서울이면서 산골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북동 골짜기였다. 언제나 맑은 개울물이 마르지않고 흘렀다. 습한 뒷등성이엔 이른 봄부터 진달래가 무더기로 만발하고 초여름부터 나뭇잎과 풀잎의 향기가 그윽한 속에서 뻐꾸기가 울기도 했다. 야산이 아니라 심산의 수석과 초훼草卉를 갖추고 있는 산이다. …

성북동 산에서 맞는 아침 해돋이는 장관이다. 동쪽을 향해 활개를 펴고 있는 듯한 성북동 산의 중턱에 오르면 아침 안개가 바다처럼 동부 서울의 지붕들 위에 깔리고, 그 위로 탐스런 얼굴처럼 빛나면서 솟아오르는 아침 해돋이의 현란한 아름다움은 바다의 그것에 못지않은, 오히려 그 배경이 오밀조밀 단순치 않아 더욱 아름다운 것이었다.

정한모, 「성북동 골짜기」, 1969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01 진성CTP 2400DPI 175LPI

음악계에는 채동선, 이인범, 윤이상이 성북동에 살았다.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채동선은 일제강점기 압박이 심해지자 성북동 집에 칩거하였다. 해방이 되었으나 한국전쟁을 겪은 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재능을 펼쳐 보이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난다. 세월이 흐른 뒤 피난 때 집 마당에 묻어놓은 작품이 발견되어 안타깝게 잊힌 이름이 되살아난다.

작곡가 윤이상, 성악가 이인범도 성북동에 살던 음악인이다. 윤이상은 현재 최순우 옛집 앞쪽에 있는 한옥에 살았다. 근처에 살던 조지훈이 시를, 윤이상이 작곡을 한 작품을 다수 남겼다. 이인범은 음악가와 교수로 활동을 하며 주목을 받던 중 불의의 사고로 큰 화상을 입었다. 치료를 위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던 시기, 성북동 집에서는 부인의 반주로 노래 연습을 하는 그의 목소리가 항상 흘러나왔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노력으로 재기하여 음악계에 복귀하였다.

이밖에 서양화가 변종하, 조각가 송영수, 서예가 유치웅도 성북동에 직접 집을 짓고 살며 작품 활동을 하였다. 또, 한국화단을 이끈 산정 서세옥과 서울대 미대 출신인 노석 신영상, 우현 송영방, 이석 임송희와 서양화단의 윤중식, 전성우, 매듭장 김은영 등 성북동 예술인의 계보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다.

* [부록]에 실린 성북동 문화예술인 목록과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1~2권 참고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02 진성CTP 2400DPI 175LPI

일가에 모인 것이 천추의 정화로다

위창 오세창

간송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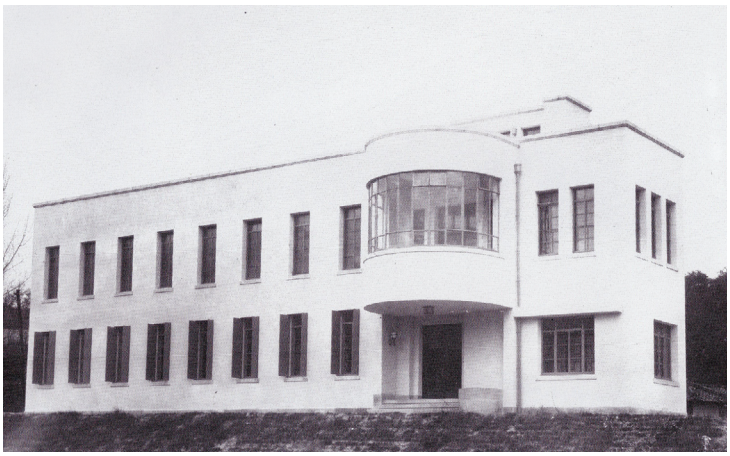
간송 전형필澗松 全鎣弼, 1906~1962은 일제강점기 훼손되고 빼앗기는 문화유산을 보호한 문화재수집가이다.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대항하고,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려 노력하였다.

위창 오세창 선생의 안목을 잇는 감식안을 가진 간송은 헐값으로 나온 문화재라도 가치를 따져 주인에게 제대로 된 값을 쳐 주었고, 일본에 팔려나가는 문화재는 경매가의 몇 배가 넘는 돈을 내서라도 사들였다.

전적, 서화, 석조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수집품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성북동 북단장에 1938년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관인 보화각葆華閣 건립하였다. 한국전쟁 때 소장품이 북한군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으나 손재형과 최순우가 지연작전을 펼쳐 지켜냈다. 주요 소장품에는 〈훈민정음〉, 〈혜원풍속도〉, 〈백자박산향로白磁博山香爐〉 등이 있다.

수집한 문화재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러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하라는 간송의 뜻을 이어 1966년 한국민족미술연구소가 개설되었다. 보화각은 간송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1971년부터 지금까지 봄과 가을에 전시를 열어 소중한 문화유산을 공개하고 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03 진성CTP 2400DPI 175LPI



보화각(간송미술관)

성 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04 잉성CTP 2400DPI 175LPI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에 비치고

성락원

성락원城樂園은 조선 순조 때 조성된 민가 정원이다. 철종 때는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의친왕儀親王, 1877~1955의 별궁으로 35년 동안 사용되다가 1932년 아들 이건李鍵, 1909~1990에게 상속되었다. 이건 공이 1947년 일본에 귀화한 후 박용하라는 인물이 소유하였다가 심상응의 후손인 심상준이 매입하였다. 1992년 사적 제378호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명승 제35호로 지정변경되어 보존되고 있다.

자연 암반과 계곡이 아름다운 성북동 풍경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이곳은 폭포, 연못, 우거진 나무와 한옥이 어우러져 또 다른 절경을 이루고 있다. 성북동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모인 영벽지影碧池부근의 바위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에 비치고	明月松間照
맑은 샘물은 돌 위에 흐르며	靑泉石上流
푸른 산이 몇 겹 싸여	靑山數疊
나는 내 농막을 사랑한다.	吾愛吾廬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05 진성CTP 2400DPI 175LPI





성락원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06 진성CTP 2400DPI 175LPI

하늘에 풍요를 빌다

선잠단

선잠단先蠶壇은 양잠養蠶의 풍요를 위해 처음으로 백성에게 양잠하는 법을 가르친 신神에게 제사지내는 곳이다. 조선시대 왕은 선농단에서 논을 갈고, 농사의 신인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에게 제를 올렸고, 왕비는 선잠단에서 누에를 치고 잠신蠶神서릉씨西陵氏에게 제사 지냈다. 선잠단의 위치는 1425년에 발간된 경도한성부京都漢城府에 "선잠단은 동소문 밖 사한이沙閑伊에 있다."[25]라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사한이는 성북동을 말한다.[26] 선잠제는 순종1년(1908) 선잠단의 신위를 사직단社稷壇으로 옮겨가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되고, 성북동이 개발되며 주변으로 건물이 들어서서 예전 규모와 모습은 사라졌다. 1963년에 사적 제83호로 지정되었고, 선잠제향보존회에서 1993년부터 선잠제향을 복원하여 해마다 5월 초에 선잠제를 지내고 왕비행렬행사를 개최한다.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07 진성CTP 2400DPI 175LPI





선잠단/선잠제향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08 잔성 CTP 2400DPI 175LPI

달빛 노니는 창살 이야기

최순우



성북동 자택에서, 최순우

자연의 아름다움이 결코 큰 덩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뜰 앞 잔가지에 구슬진 영롱한 아침이슬, 오솔길에 차분히 비에 젖은 낙엽, 서리찬 겨울 달밤 빈 숲 잔가지에 쏟아지는 달빛, 예를 들자면 한이 없지만 고맙고 즐거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갈피갈피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낙이 젊음과 사랑의 생리 속에 속속들이 스몄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최순우, 「자연의 아름다움」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09 진성CTP 2400DPI 175LPI

최순우 옛집

미술사학자이자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 최순우兮谷 崔淳雨, 1916~1984가 살던 집이다. 평생 박물관에 근무하며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국내외 전시를 통해 일반에 널리 알리며 박물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형필, 김환기, 장욱진, 이경성 등 당대 문화예술인과 교류하며 문화예술계를 이끌었다.

이집은 1930년대 지어진 근대한옥으로 소박하고 정갈한 한국 미美를 아낀 혜곡의 안목이 담겨 있다. 사랑방에는 1976년 이사 오던 해 친필로 쓴 '두문즉시심산杜門則是深山' 편액이 걸려있다. '문을 닫으면 이곳이 곧 깊은 산중이다' 라는 뜻이다. 이곳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는 글을 썼다.

최순우 옛집(혜곡최순우기념관, 등록문화재 제268호)은 2002년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전 의지로 지켜진 시민문화유산 1호이다. 개인과 기업의 성금으로 문화와 자연유산을 지키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으로 매입하여 복원보수를 거쳐 2004년부터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최순우 선생의 친필원고, 사진, 유품 등 소장품을 상설전시하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해마다 봄 · 가을에 문화프로그램을 가을에는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10 진성CTP 2400DPI 175LPI



● 으로 표시한 곳은 건물이 남아있지 않은 곳입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11 진성CTP 2400DPI 175LPI

문화유산 지도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12 잉성CTP 2400DPI 175LPI



부 록

문화유산 목록
본문 수록 인물 목록
참고·인용자료
조사개요

최순우옛집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13 잔성CTP 2400DPI 175LPI

문화유산 목록

명칭	개방	문의	주소
간송미술관	5,10월 중 일반개방	02-762-0442	성북동 97-1
길상사	상시 개방	02-3672-5945	성북동 323
변종하미술관	비공개	02-764-2590	성북동 330-484
삼청각	상시 개방	02-765-3700	성북동 330-115
서울성곽 (사적 제10호)	4~10월: 9:00~15:00 / 11~3월:10:00~15:00	02-747-2152	
선잠단지 (사적 제83호)	5월 선잠제향기간	02-920-3413	성북동 64-1
성락원 (사적 제378호)	비공개	02-920-3413	성북동 2-22
수연산방 (서울시 민속자료 제11호)	월~일, 11:30~22:30	02-764-1736	성북동 248
심우장 (서울시 기념물 제7호)	상시 개방	02-920-3413	성북동 222-1
이종석별장 (서울시 민속자료 제10호)	비공개	02-741-5165	성북동 243-4
최순우옛집 (등록문화재 제268호, 시민문화유산 제1호)	4-11월, 화~일요일, 10~16시	02-3675-3401	성북동 126-20
갤러리 오뉴월	화~일,11:00~19:00	070-4401-6741	성북동 51-2번지
성북구립미술관	화~일,10:00~18:00	02-6925-5011	성북동 246
스페이스캔	월~토, 10:00~18:00	02-766-7660	성북동 46-26
한국가구박물관	비공개	02-745-0181	성북동 330-577
한국서예관	전시 기간 중 별도확인	02-741-8881	성북동 321-13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14 잔성 CTP 2400DPI 175LPI

본문 수록 문화예술인 목록

- 성북동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은 청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설명 뒤의 숫자는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의 권(①권-2009, ②권-2010년 성북구청 발행) 표시입니다.

고유섭(高裕燮) 1905~1944 우현(又玄)
미술사학자. 인천 출생. 경성제국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였다. 개성부립박물관장을 지냈다. 근대 미술사 방법론으로 우리 미술을 처음 학문화하였다. 저서로 『송도고적』, 『조선탑파의 연구』 등이 있다.

김광균(金光均) 1914~1993 우두(雨杜)
시인. 개성 출생. 1930년대 모더니즘 시론을 실천하고, 시각적인 시를 잇달아 발표하여 '청각조차 시각화하는 재주'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집으로 『와사등』, 『기항지』 등이 있다.

김광섭(金珖燮) 1906~1977 이산(怡山)
시인. 함북 경성 출생. 광복 전후 문화계 · 관계 · 언론계 등에서 활동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동경』, 『해바라기』, 『성북동 비둘기』 등이 있다. ①

김기창(金基昶) 1913~2001 운보(雲甫)
화가. 서울 출생. 7살 때 장티푸스로 청각을 잃었으나, 17세인 1930년 이당 김은호의 문하에 들어가 한국화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신앙화, 구상화, 추상화, '바보산수' 작품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①

김내성(金來成) 1909~1957 아인(雅人)
소설가. 근대시기 우리나라 탐정소설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작품으로 『가상범인』, 『백가면』 등이 있다.

김동순(金東純) 1925~
의사. 우리나라 최초 여자정신과전문의 1호. 1965년 성북동에 동북신경정신과의원을 개원. 서울여자의과대학(현 고려대 의대)을 나와 미국 뉴욕대학으로 유학 후 1963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김성칠(金聖七) 1913~1951
역사학자. 경북 영천 출생. 민족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고, 고어, 고대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1950년 '지명조사연구회'를 만들었다. 저서로 『조선역사』, 『동양사개설』 등이 있다.

김영한(金英韓) 1916~1999
서울출생. 조선권번에서 전통 기생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로 백석이 사랑한 여인으로도 유명하다. 김영한이 운영하던 대원각은 1996년 법정스님에게 기증되어 길상사로 바뀌었다.

김용준(金瑢俊) 1904~1967 근원(近園)
화가 · 수필가. 경북 대구 출생. 1931년 일본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으나 1939년부터는 전통적인 동양화로 전향하였다.『근원수필』로 '한국 수필문학의 백미'라는 평가를 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월북하여 북한 화단을 이끌었다. ①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15 잔성CTP 2400DPI 175LPI

김윤식(金允植) 1835~1922 운양(雲養)
조선후기 문신. 서울 출생.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체결, 갑오경장의 입안자로 참여하는 등 일본의 국권침탈 조약에 응하였다. 저서로 『운양집』, 『속음청사』 등이 있다.

김은영(金銀暎) 1942~ 송리(松里)
매듭장. 서울 출생. 1996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매듭장으로 지정받았다. 매듭의 여러 쓰임을 알리고자 '김은영 전승매듭연구회'를 조직하였다. 『김은영매듭』, 『매듭만들기』 등의 저서가 있다. 2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추사(秋史), 완당(阮堂)
조선 말기의 문신 · 실학자 · 서화가. 충남 예산 출생. 고증학과 금석학에 뛰어났고, 말년에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추사체를 완성하였다. 『실사구시설』, 『완당집』, 『금석과안록』 등이 있다.

김종권(金鍾權) 1917~1987
교육자. 강원도 양양 출생. 1961년부터 보성고등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쳤다. 국학 관계 서적 47책 252권을 내어 국학연구에 기여하였다. 저서로 『아언각비』, 『동국병감』, 『삼국사기이야기』 등이 있다.

김태신(金泰伸) 1922~ 일당(日堂)
화가. 일엽(본명 김원주.1896-1971)스님의 아들이다. 이당 김은호와 일본의 이토오 신스이(伊東深水)에게 사사했다. 60대 중반에 출가하였다.

김향안(金鄕岸) 1916~2004
수필가 · 미술평론가. 서울 출생. 본명 변동림(卞東琳). 1930년대 중반부터 문학활동을 하였다. 수필집 『파리』, 『카페와 참종이』 와 남편인 화가 김환기의 전기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 를 냈다.

김환기(金煥基) 1913~1974 수화(樹話)
서양화가. 전남 신안 출생.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이다. 해방 후에는 산, 강, 달 등 자연을 소재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며, 신사실파(新寫實派)를 조직, 모더니즘 운동을 전개하였다. 1

민영환(閔泳煥) 1861~1905 계정(桂庭)
조선후기의 문신 · 순국지사. 서울 출생. 이조참판, 내부대신 등을 지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의 내정 간섭을 비판하였으나 이미 대세가 기울어짐을 보고 자결하였다.

박두진(朴斗鎭) 1916~1998 혜산(兮山)
시인. 경기도 안성 출생. 1946년부터 박목월 · 조지훈과 함께 청록파로 활동하였다. 자연친화를 주제로 한 시와 기독교 색채의 시를 발표하였고, 시집으로 『청록집』(공저), 『해』, 『하얀 날개』 등이 있다.

박래현(朴崍賢) 1920~1976 우향(雨鄕)
화가. 평남 진남포 출생. 동양화의 전통적 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도를 전개하였다. 1969년 뉴욕에 판화연구소를 두어 동양화의 실험적 의욕을 판화란 매체로 실현시켰다. 작품으로 〈이른 아침〉, 〈화장(化粧)〉 등이 있다.

박목월(朴木月) 1916~1978
시인. 경북 경주 출생. 1946년 조지훈 · 박두진과 『청록집』 을 발행하였다. 향토적인 시에 가족이나 생활 주변에서 소재를 택하여 소박한 주변의 생활을 담아냈다. 주요 작품으로 「청노루」, 「나그네」 등이 있다.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16 잔성CTP 2400DPI 175LPI

박제가(朴齊家) 1750~1805 초정(楚亭)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제자로 18세기 후반 대표적인 실학자이다. 상업과 무역에 이해가 깊었고, 화폐의사용과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 상공업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북학의(北學議)』가 있다.

박태원(朴泰遠) 1910~1986 구보(仇甫)
소설가. 서울 출생. 이태준, 유치진 등과 구인회(九人會)를 조직했다. 경성의 모습과 당시 세태를 담은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천변풍경』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때 월북하였다. 1

방인근(方仁根) 1899~1975 춘해(春海)
소설가. 충남 예산 출생. 1924년 사재(私財)로 종합문예월간지 『조선문단』을 간행하였다. 장편소설 『마도(魔都)의 향불』, 『화심(花心)』 등이 있다.

백상규(白象圭) 1883~1955
학자.정치가. 경기도 장단 출생. 1924년부터 보성전문학교에서 영문학과 경제학 등을 강의하였다.1950년 총선때 무소속으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곧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9 · 28 서울수복 직전에 납북되었다.

백석(白石) 1912~ 1996 백석(白石)
시인. 평안북도 정주 출생. 본명 백기행. 고향 사람들의 생활을 소재로 삼아 지방의 방언과 풍속을 담아냈다. 1936년 시집 『사슴』을 간행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고향』, 『북방에서』 등의 작품이 있다. 해방 이후 고향인 정주로 돌아갔다.

법정(法頂) 1932~2010
승려. 속명(俗名) 박재철. 전남 해남 출생. 1956년 통영 미래사(彌來寺)에서 효봉(曉峰)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강원도 산골에서 직접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며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수필집으로 『무소유』, 『오두막편지』 등이 있다.

변종하(卞鍾下) 1926~2000 석은(石隱)
화가. 대구 출생. 중국 신경시립미술원, 프랑스 소르본느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입체감과 생동감을 살린 요철회화(凹凸繪畵)로 개성 있는 작품세계를 펼쳤다. 대표작으로 〈돈키호테〉, 〈서정적풍경〉 시리즈가 있다. 2

서세옥(徐世鈺) 1923~ 산정(山丁)
화가. 대구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였다. 해방 후 1세대 작가로 1960년 묵림회(墨林會)를 결성하고 주도하였다. '인간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서예 필법으로 담아내고 있다. 2

송영방(宋榮邦) 1936~ 우현(牛玄)
화가. 경기도 화성 출생.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새로운 동양화를 모색하는 '묵림회' 와 '한국화회'에 참여하였다. 대표작품으로 〈승무〉, 〈산수〉 등이 있다. 2

송영수(宋榮洙) 1930~1970
조각가.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였다. 금속재료를 용접하는 용접조각과 다양한 기념조형물들을 통해 '철조각의 선구자', '최초의 추상조각가' 라 평가받았다. 작품으로 〈순교자〉, 〈경부고속도로기념탑〉 등이 있다. 2

신영상(辛永常) 1935~ 노석(老石)
화가. 충남 당진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였다. 묵림회 활동에 참가하며 한국회화를 중심으로 전통회화의 현대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작품으로 〈일월(日月)〉, 〈편운(片雲)〉, 〈정오(正午)〉 등이 있다. 2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17 잔성 CTP 2400DPI 175LPI

심상응(沈相應)
조선후기 문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냈다.

심상준(沈相俊) 1917~1991
기업가. 함경남도 삼수 출생. 1972년 한국수산개발공사를 인수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인 '지남호(指南號)'로 1957년 참치조업에 성공하여 원양어업의 개척자 역할을 하였다.

오세창(吳世昌) 1864~1953 위창(葦滄)
독립운동가 · 서예가 · 언론인. 천교도일간지 『만세보』의 계몽운동을 통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고, 3 · 1 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다. 전각과 서예에도 뛰어났다. 저서로 『근역서휘』, 『근역화휘』, 『근역서화징』 등이 있다.

원세개(袁世凱) 1859~1916
정치가. 중국 허난성[河南省] 샹청[項城]출생. 1882년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난 후 조선에 부임하여 국정에 간섭하였다. 신해혁명 때 청나라 조정의 실권을 잡고 임시총통이 되었고, 후에는 황제가 되기 위해 황제추대운동을 벌였으나 실패하였다.

유치웅(俞致雄) 1901~1998 일창(一滄)
서예가. 충남 부여 출생. 근대기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초서(草書)에 능했다. 1948년에 초대 감찰위원회 감찰관을 지냈다. 명지학원(명지대학교) 이사장, 학교법인 오산 · 보인학교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2

윤이상(尹伊桑) 1917~1995
작곡가. 경남 통영 출생. 전통 음악에 서양의 악기와 기법를 더한 곡으로 주목받았다. 1971년 독일에 귀화하였다. 오페라, 교향곡, 실내악곡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오페라 〈심청〉,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 관현악곡 〈신라〉 등이 있다.

윤중식(尹仲植) 1913~
화가. 평안남도 평양 출생. 서양미술의 도입 시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향을 상징하는 태양, 섬, 강, 돛단배, 비둘기 등을 통해 향토적인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다. 2

의친왕(儀親王) 1877~1955 만오(晩悟)
이름은 이강(李堈)이다.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다. 1899년 의친왕에 봉해졌다.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당한 이후 독립운동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일본을 배척하였다.

이건(李鍵) 1909~1990
의친왕의 맏아들이다. 일본으로 귀화하였다. 1919년 아버지 의친왕의 망명 실패 후 그에게 공의 지위를 증여하였다. 이후에 모모야마 겐이치(桃山虔一)로 이름을 바꾸고 1947년 일본에 귀화하였다.

이경성(李慶成) 1919~2009 석남(石南)
미술평론가. 인천 출생. 전문 미술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하였다. 재임 시 국내 최초로 학예연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작품 소장 계획을 확립하는 등 우리나라 미술관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광수(李光洙) 1892~1950 춘원(春園)
소설가. 평북 정주 출생.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을 매일신보에 연재하였다. 소설 『흙』, 『단종애사』 등이 있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18 잔성 CTP 2400DPI 175LPI

이규선(李奎鮮) 1938~ 남계(南溪)
동양화가. 인천 출생. 서울대 회화과 졸업하고 이화여대 교수를 지냈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뉴욕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근택(李根澤) 1865~1919
조선후기 관료. 충북 충주 출생. 친일파로 을사오적(乙巳五賊)의 한사람이다. 1910년 한일합병 때 협조하여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았고 같은 해에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이 되었다.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아정(雅亭)
조선후기 실학자. 실증적 고전 연구의 방법인 청나라의 고증학을 수용해 북학을 발전시켰다. 저서로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아정유고(雅亭遺稿)』 등이 있다.

이동식(李東植) 1920~
의사. 경북 칠곡 출생. 일본과 미국에서 정신의 수련을 받았다. 1946년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창립하였고, 불교, 도교, 유교 등 동양사상을 연구하며 '도정신치료'를 정립하였다. 1965년 성북동에 동북신경정신의원을 개원하였다.

이병철(李秉喆) 1910~1987 호암(湖巖)
기업가. 경남 의령 출생. 1936년 마산에서 협동정미소를 세워 사업을 시작한 후 1938년 삼성그룹의 모체인 삼성상회를 설립하였다. 30여 년에 걸쳐 수집한 소장품으로 1982년 호암미술관을 개관하였다.

이원섭(李元燮) 1924~2007 파하(巴下)
시인 · 불교학자. 강원도 철원 출생. 1944년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였고, 1960년 한국문학가협회상을 수상하였다. 시집으로 『향미사(響尾蛇)』, 『담배파이프』 등이 있고, 『법구경의 진리』 외 다수의 불교관련 책을 저술하였다.

이윤재(李允宰) 1888~1943 환산(桓山)
국어학자 · 역사학자. 경남 김해 출생. 한글 보급을 통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어학회 ·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사하였다. 저서로 『성웅 이순신』, 『문예독본』 등이 있다.

이인범(李仁範) 1914~1973
성악가. 평북 용천 출생. 연희전문학교와 일본 국립고등음악학원을 졸업하였다. 1939년 일본 음악콩쿠르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1등 없는 2등을 수상하였다. 해방 후 대학교수와 독창자로 활동하였다.

이재준(李載濬) 1917~1995 수암(修巖)
기업가. 경기도 시흥 출생. 1939년 대림그룹의 전신인 부림상회를 창립하였다. 1970년 대림학원, 1977년 대림전문대학, 1989년 수암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1981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종석(李鍾奭) 1875~1952
상인. 서울 출생. 조선시대 후기 마포에서 젓갈장사를 해서 큰돈을 번 상인이다. 1933년 재산을 기부하여 재단법인을 만들고 보인학교(輔仁學校)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육영사업에 힘썼다. 서울 장교동에 본가를 두고 성북동에 여름별장을 지었다.

이지용(李址鎔) 1870~1928 향운(嚮雲)
조선후기 관료. 1905년 내부대신 때 을사조약에 찬성하고 서명 한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중 한 사람이다. 국권피탈 후 백작 칭호를 받고,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19 진성CTP 2400DPI 175LPI

이태준(李泰俊) 1904~? 상허(尙虛)
소설가. 강원도 철원 출생. 「오몽녀(五夢女)」로 등단하여 구인회(九人會) 활동을 하였다. 작품으로 『가마귀』, 『달밤』, 『복덕방』 등이 있다. 해방 후 월북하였다. 1

임규(林圭) 1867~1948 우정(偶丁)
독립운동가. 전북 익산 출생. 1919년 3·1운동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48인중 한 사람이다. 한국 고전 간행기일본의 주요기관인 귀족원, 중의원에 독립 선언서와 독립 청원서를 전달관인 조선광문회 창설에 참여하였고, 저서에 『북산산고』 가 있다.

임송희(林頌羲) 1938~ 이석(以石)
화가. 충북 증평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였고, 제1회 겸재 미술상을 수상하였다. 새로운 동양화를 모색하는 '묵림회' 와 '한국화회'에 참여하였다. 2

장승업(張承業) 1843~1897 오원(吾園)
화가. 근대 회화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산수와 인물에 뛰어났고, 안견(安堅)·김홍도(金弘道)와 함께 조선시대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진다.

장욱진(張旭鎭) 1917~1990
화가. 충남 연기 출생. 1948년 김환기·이규상 등과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약하였다. 동화·전설·이웃 등의 시골생활과 그 자연환경을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동양적 철학사상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까치〉, 〈두 아이〉 등의 작품이 있다.

전광용(全光鏞) 1919~1988 백사(白史)
소설가·국문학자. 함남 북청 출생. 출세주의자를 풍자한 단편 『꺼삐딴리』로 동인문학상을 받았다. 작품으로 『창과 벽』, 『편지의 미학』 등이 있다.

전성우(全晟雨) 1934~ 우송(雨松)
화가. 서울 출생. 미국 유학시절 동양의 회화전통과 서양의 추상표현을 성공적으로 융합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대표작으로 〈만다라〉 시리즈가 있다. 2

전형필(全鎣弼) 1906~1962 간송(澗松)
문화재수집가. 서울 출생.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여 외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성북동 북단장에 보화각을 세워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을 설립하여 수집한 문화재를 보존하였다. 1

정지용(鄭芝溶) 1902~1950
시인. 충북 옥천 출생. 섬세하고 개성있는 표현으로 모국어를 현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으로 「향수」, 「압천」, 「바다」 등 이 있다.

정탁영(鄭晫永) 1937~ 백계(白溪)
동양화가. 강원도 횡성 출생. 196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묵림회에 참여하여 수묵 추상화를 선보였다. 작품으로 〈잊혀진 것들〉, 〈영겁속에서〉 시리즈 등이 있다.

정한모(鄭漢模) 1923~1991
시인, 국문학자. 충남 부여 출생.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인간의 순수한 서정을 표현했다고 평가 받는다. 시집으로 『카오스의 사족(蛇足)』, 『나비의 여행』 등이 있다.

정한숙(鄭漢淑) 1922~1997 일오(一悟)
소설가. 평북 영변 출생. 고려대 교수, 문예진흥원장을 역임하였다. 작품으로 『금당벽화』, 『전황당인보기』, 『우린서로 닮았다』 등이 있다.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2 PM 페이지 120 진성CTP 2400DPI 175LPI

조승원(趙勝元) 1901~1987 일양(一洋)
목수. 평양 출생. 도목수(都木手, 목수의 우두머리)이다. 1950~60년대 서울 보성고등학교 본관과 도서관을 건축하였고, 1970년대 삼청각의 정문과 팔각정자를 설계.시공하였다.

조지훈(趙芝薰) 1920~1968
시인 · 국문학자. 경북 영양 출생. 본명 동탁(東卓). 박두진, 박목월과 청록파로 활동하였다. 만년에는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소장으로 『한국문화사대계』를 간행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승무』, 『한국문화사서설』 등이 있다. 1

조헌영(趙憲泳) 1900~1988 해산(海山)
민족운동가 · 한의학자. 경북 영양 출생. 근대한의학을 연구한 학자이자 제헌의회 의원이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평양에서 사망하였다.

채동선(蔡東鮮) 1901~1953
작곡가. 전남 보성 출생. 1930년 우리나라 최초의 현악사중주단을 결성하였고 1945년에 고려음악협회를 조직하였다. 민요를 채보하고 합창곡으로 편곡하였다. 작품으로 가곡 〈고향〉,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이 있다.

최순우(崔淳雨) 1916~1984 혜곡(兮谷)
미술사학자. 개성 출생. 본명 희순(熙淳).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냈다. 한국미술을 외국에 알리고, 우리나라 박물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저서로 『최순우전집』(5권),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등이 있다. 1

한용운(韓龍雲) 1879~1944 만해(萬海)
시인 · 독립운동가 · 승려. 충남 홍성 출생. 속명은 유천(裕天)이다. 출가 후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하고, 3.1운동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 『조선불교유신론』, 시집 『님의 침묵』 등을 남겼다. 1

한운사(韓雲史) 1923~2009
극작가, 소설가. 충북 괴산 출생. 본명은 간남(看南)이다. 방송극 『날아간 새』, 『빨간 마후라』, 소설 『이 생명 다하도록』(1960), 『현해탄은 알고 있다』(1960) 등이 있다.

허영자(許英子) 1938~
시인. 우리나라 최초인 여성시인들의 순수시 동인 '청미회(靑眉會)'를 조직하였다. 시집 『가슴엔 듯 눈엔 듯』, 『빈 들판을 걸어가면』, 『허영자 전시집』 등이 있다.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3 PM 페이지 121 진성CTP 2400DPI 175LPI

참고 · 인용자료

※각주

■ 들어가는 말

1. 『동국여지비고』(권2)에 보면 "혜화문 밖에 성북둔은 영조 41년(1765)에 창건했는데 둔감(屯監)이 있고 환곡미 400섬, 돈 2,000냥 정도, 둔의 소유 소 33쌍이 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동명연혁고』8-성북구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3)

■ 밝고아름다운 햇빛이 온 종일 강물처럼 퍼 붓고 있는 곳

2.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에 실린 전국지리지 「경도한성부(京都漢城府)」(1425)
3.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한글학회, 1966
4.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한글학회, 1966
5. 〈파락(破落)한 금일잔해(今日殘骸) 삼선평고성(三仙坪鼓聲)도 환멸(幻滅) 4〉, 동아일보, 1928.04.22
6. 〈성북청룡암에서〉, 동아일보, 1934.08.29~31
7. 임규, 『북산산고』, 깊은샘, 2004
8. 〈재만피란동포 위호금품답지〉, 동아일보, 1931.12.07
9. 『유심』, 2001(겨울호)

■ 낙목한천의 암석미

10. 유득공, 『경도잡지(京都雜志)』, 「유상(遊賞)조」
11. 〈성북설회(城北設會)〉, 황성신문, 1907.05.07
12. 〈영랑유람(令郎遊覽)〉, 황성신문, 1905.09.27
13. 〈사교단(邪敎團) "정민회(正民會)에 단우민(斷愚民)을 기만한 제이백백교(第二白白敎)?〉, 동아일보, 1946.07.28
14. 〈수난의 원공국사승묘탑. 성북동 음벽정(飮碧亭) 뜰에서 발견〉, 조선일보,1948.07.04
15. 〈감회 새로운 동원문화재(東垣文化財)전시〉, 동아일보, 1981.06.06
16. 〈고급요정폐지 10일 연기〉, 경향신문, 1948.12.11
17. 황두진, 『당신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해냄, 2005, 19~20쪽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3 PM 페 이 지 122 진 성 CTP 2400DPI 175LPI

■ 어서 겨울 가고 봄이 와 잔디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라

18. 〈대경성건설보(大京城建設譜)〉, 동아일보. 1939.01.07

19. 이상범, 〈일장기말소사건 20년 전의 회고기〉, 동아일보, 1956.08.17

■ 헌데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20. 〈성북동 일대 바위틈서 솟아 위장병에 효험설도〉, 경향신문, 1983.04.09

21. 1977년에는 성북동 330번지 일대와 동선.혜화.명륜동 풍치지구 일부가 축소되었고 (2,398,000㎡에서 315,300㎡축소), 1987년부터는 대폭 해제되었다. (성북동 111-9일대 7만㎡, 145-55일대 5만5천4백20㎡, 168일대 4만1천2백㎡, 186일대 3천8백80㎡)

22. 한국전력, 『한국전기백년사』, 1989

■ 비개인 맑은 아침인 것을 저희들만 아노라

23. 허영자, 《시인세계》, 2010 여름호

■ 풍수에 그을린 화강암의 성벽

24. 〈성석을 축대로〉, 동아일보, 1955.11.11

■ 하늘에 풍요를 빌다

25.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 「경도한성부(京都漢城府)」, 1425

26.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 「경도한성부(京都漢城府)」, 1425

성 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3 PM 페이지 123 진성CTP 2400DPI 175LPI

※ 수록자료 목록

■ 목차

2~3쪽_ 〈동궐도(東厥圖)〉(국보 제249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들어가는 말

4쪽_ 이태준, 「성(城)」, 『무서록』, 깊은샘, 1994, 37~38쪽.

6쪽_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촬영: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 밝고 아름다운 햇빛이 온 종일 강물처럼 퍼 붓고 있는 곳

11쪽_『조선왕조실록』, 영조 105권, 41년(1765 을유)

12쪽_〈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節目)〉(서울유형문화재 제182호)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촬영: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13쪽_ 윤백남, 〈야화〉, 동아일보, 1952.11.22

14쪽_ 〈흰 옷 입은 대지, 성북동 초원에서〉, 동아일보, 1935.05.31

15쪽_ 〈표백회사(漂白會社)〉, 황성신문, 1902.05.08

16쪽_ 전성우(1934~, 화가), 2010.07.13 인터뷰

17쪽_ 〈성북동(城北洞)에 대시출현(大豺出現)〉, 동아일보, 1921.11.26

19쪽_ 이윤재, 〈성북청룡암에서〉, 동아일보, 1934.08.30

20쪽_ 서세옥(1929~, 화가), 2009.07.16 인터뷰

21쪽_ 〈과책당금(果則當禁)〉, 황성신문, 1909.10.01

■ 낙목한천落木寒天의 암석미岩石美

27쪽_ 이덕무, 〈성시전도(城市全圖)〉, 『아정유고12(雅亭遺稿十二)』,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8쪽_ 김정희, 〈북둔에서 도화를 구경하다〉, 『완당전집(阮堂全集)』,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9쪽_ 〈부호의 별장지대풍경, 성북동일대〉, 《삼천리》, 1935

31쪽_ 서세옥(1929~, 화가), 2009.07.28 인터뷰

32쪽_ 〈음벽정 광고〉, 동아일보, 1937.10.30

33쪽_ 〈더 허가치 안는다〉, 동아일보, 1936.08.09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3 PM 페이지 124 진성CTP 2400DPI 175LPI

■ 어서 겨울 가고 봄이 와 잔디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라

40쪽_ 〈보성고보(普成高普) 송림(松林)이 울창(鬱蒼)한 평화(平和)의 학교촌(學校村)〉, 동아일보, 1927.08.30

41쪽_ 삼선교와 돈암동 일대(1939년경), 『동명연혁고』8권-성북구편, 서울시사편찬위원회,1983, 82쪽

41쪽_ 정한숙, 「성북구 성북동」, 『금당벽화』,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239쪽

43쪽_김성칠, 『역사 앞에서 - 한 사학자의 6 · 25 일지』, 창비, 2009, 80~1쪽, 243쪽

45쪽_최순우, 「이충구씨」, 『최순우전집』5, 1992, 323쪽

47쪽_성북동 주민 2011.09.15 인터뷰

47쪽_정한모, 「성북동 골짜기」, 『바람과 함께 살아온 세월』, 문음사, 1983, 252쪽

■ 헌데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52쪽_김기창, 〈수도와 전화와 하이힐〉, 서울신문, 1957

53쪽_혜화문, 『조선고적도보』11책, 조선총독부, 1931, 도판번호 4842(촬영: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53쪽_전성우(1934~, 화가), 2010.07.13 인터뷰

54쪽_유영춘(경일안경원 운영), 2010.04.20 인터뷰

55쪽_김남숙(원희패션 운영), 2011.12.12 인터뷰

57쪽_김배영(1935~,), 2010.05.19 인터뷰문,1955.9.25

59쪽_김태길, 〈구름낀 하오〉, 동아일보, 1963.11.11

■ 비개인 맑은 아침인 것을 저희들만 아노라

63쪽_〈불우아동에 배움의 길 성북파출소가 빚은 민경친선〉, 경향신문, 1955.09.25

64쪽_〈삼산창립〉, 황성신문, 1908.07.18

65쪽_이태준, 『달밤』, 맑은소리, 1999, 2~4쪽

67쪽_서세옥(1929~, 화가), 2009.07.08 인터뷰

■ 별을 보던 시대는 행복했다

76~77쪽_김배영(1935~, 성북1동 76년 거주), 2010.05.19 인터뷰

80~81쪽_이덕훈(1936~, 성북2동 북정골 45년 거주), 2011.09.15 인터뷰

84~85쪽_조영아(1940~, 성북2동 56년 거주), 2010.04.01 인터뷰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3 PM 페이지 125 진성CTP 2400DPI 175LPI

■ 마을 집 아늑하여 그림 같은데

86~87쪽_〈동궐도(東厥圖)〉(국보 제249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89쪽_〈가을밧 고요히 잠긴 옛성길로-성북동 일우(一隅)에서 본 바〉, 매일신보,1934.10.04

■ 앙상한 나무들과 까치집과 싸리 울타리와 괴석과 흰 눈과 그리고 따스한 햇볕

95쪽_「노시산방기」, 『새 근원수필』, 열화당, 2001, 114~119쪽

95쪽_노시산방, 『새 근원수필』, 열화당, 2001

■ 우리 성북동의 봄은 순동양적, 순조선적 봄이어서 좋다

96쪽_이태준, 「목수들」, 『무서록』, 깊은샘, 1994, 128~130쪽

■ 삼선교에서 성북동 뒷산을 보며 황혼길을 걸어오는 맛

99쪽_김기창, 〈성북동 집〉, 『화방여적』, 학원사, 1962

100쪽_정한모, 「성북동 골짜기」, 『바람과 함께 살아온 세월』, 1983, 249쪽

■ 일가에 모인 것이 천추의 정화로다

103쪽_전성우, 『간송 전형필』, 보성중고등학교, 1996

■ 달빛 노니는 창살 이야기

108쪽_최순우,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학고재, 2002, 17쪽

· 저작권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자료(1920~30년대)는 최초로 수록된 매체의 동의를 얻어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 사진제공: 길상사(37쪽), 이성수(91쪽), 성유숙(93쪽), 성북구청(105쪽), 김재경(112쪽)
·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서 촬영한 사진은 목록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8-9, 19, 34, 35, 38-39, 45, 48-49, 51, 55, 58-59, 60-61, 68, 70-71, 74-75, 74-75, 78-79, 81, 82-83, 97, 107, 108, 127쪽).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3 PM 페이지 126 진성CTP 2400DPI 175LPI

조사개요

기　　간 : 2011년 4월 13일부터 10월 31일
발　　주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　　관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혜곡최순우기념관)
감　　수 : 김인회(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이사장, 혜곡최순우기념관 관장)
기획 · 진행 : 송지영(혜곡최순우기념관 학예사)
조사 · 원고 : 송지영, 심지혜(혜곡최순우기념관 연구원)

도움주신 분들(가나다순) :
김남숙, 김동순, 김배영, 김향규, 서세옥, 유영춘, 이덕훈, 전성우,
조영아, 현금동, 김남숙, 황옥숙

성 북 동 3 1226-수정 2011.12.26 12:13 PM 페이지 127 잔성 CTP 2400DPI 175LPI

자연과 문화유산의 100년 미래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 기부 · 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시민주도로 영구히 보전 · 관리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최순우 옛집(시민문화유산 1호)'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관련 문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유산 : 최순우 옛집, 도래마을 옛집, 권진규 아틀리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26-20 '최순우 옛집' | 02-3675-3401~2
http://www.nt-heritage.org | http://cafe.naver.com/ntchfund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0-297069 (예금주: 내셔널트러스트문화)



최순우옛집

성북동3 1226-수정 2011.12.26 12:13 PM 페이지 128 진성CTP 2400DPI 175LPI

성북동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3

발 행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 관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기획·진행 송지영

원 고 송지영, 심지혜

제 작 연두와파랑 02 3446 4738

디 자 인 마가림

발 행 일 2011. 12. 27